

제205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G2갈등 불똥 튀 WB...김용 총재 중도하차 2



'CES 2019' 삼성 로봇·돌돌 마는 LG TV 주목 12



코스피(8일)
2025.27 (-11.83p)

코스닥
668.49 (-4.35P)

환율(달러당 원화)
1124.1 (+5.5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10% (-0.003%p)

〈지난해 4분기〉

삼성·LG전자 동반 '어닝쇼크'...韓경제 경고등

삼성전자 반도체 부진 '직격탄'

매출 59조·영업익 10.8조로 '뚝'

LG '스마트폰 부진의 늪'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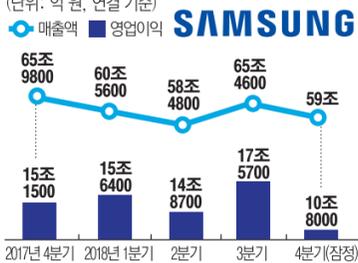
매출 15.7조·영업익 753억 '충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나란히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쳤던 두 대표 기업의 실적이 모두 꺾이며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련기사 3·10·15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9조 원에 영업이익 1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8일 밝혔다. 증권사들의 전망치 평균인 13조3800억 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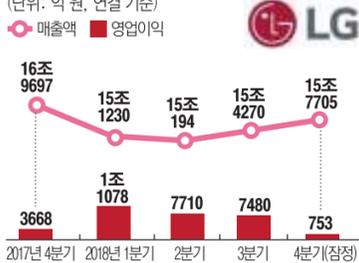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



은 기간(65조9800억 원)보다 10.6% 줄었으며, 전 분기(65조4600억 원)보다도 9.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15조1500억 원)에 비해 28.7% 축소됐고,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전 분기(17조5700억 원)보다는 38.5%나 급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의 환경 불확실성

LG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



이 커진 가운데, 메모리 사업 실적이 수요 부진으로 크게 줄었다"며 "스마트폰 사업도 경쟁 심화로 실적이 둔화하며 전 분기 대비 전사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LG전자 역시 지난해 4분기 매출 15조7705억 원, 영업이익 753억 원이

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의 전망치 평균인 3893억 원과 비교하면 심각한 어닝쇼크다. 영업이익률은 0.48%에 불과했다. TV와 가전사업부의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었고, 스마트폰 사업과 자동차 전자사업이 적자를 이어갔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각각 영업이익 58조8900억 원, 2조702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세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부터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전 세계를 무대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주택 분양보증 3년 연속 감소

작년 53조...서울 33% 뚫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승인한 분양 보증 발급 규모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년 전 호황기였던 주택시장이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8일 HUG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분양보증 승인 실적(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합산)은 52조8949억 원(19만4760가구)으로 집계됐다. 2017년(56조7591억 원, 23만4777가구)보다 6.8%가량 감소한 것으로 2015년 이후 3년째 규모가 줄어든 수치다.

분양보증은 2010년에 10조 원대 수준에서 2015~2016년에 80조 원대로 급속도로 규모가 커졌다. 당시 주택분양 물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며 분양 시장에 활력이 돌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공급계획 실행 물량이 줄면서 분양 보증 규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임대)보증은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보증 규모는 6조2196억 원으로 전년도(9조2872억 원)보다 약 33% 줄었다. 주택만 봤을 때는 분양주택보증 규모가 8조8153억 원에서 5조7719억 원으로 약 35%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4조1815억 원에서 3조7386억 원으로 10.6%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18조1249억 원에서 21조78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6.3% 증가했다.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 대부분 지역의 보증 실적은 감소했다. 울산의 경우 보증 실적은 제로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민었던 수출마저 제동 작년 11월 경상흑자폭 '뚝'

50억6000만 달러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아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뚜렷하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 단가 하락과 미·중 간 무역분쟁 등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5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3월 이후 8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한 것이나 흑자폭은 작년 4월(17억7000만 달러)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상품 수출은 517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5% 증가에 그쳤다. 설과 추석 등 명절효과를 제외할 경우 2016년 10월(-6.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품 수입은 43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4.1% 증가한 51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166.7%)과 석유제품(21.0%) 등은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기기(-4.2%)와 승용차(-0.7%)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주력 지역인 중국(-2.7%)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가 각각 25.3%, 3.7% 증가했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수출이 부진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 단가가 둔화한 데다 세계

경상수지 추이



교역량도 둔화하고 있다.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작년 9월 세계교역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에 그쳤다. 2017년 10.6%, 지난해 1~7월 누계 13.5%, 8월 8.6%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WTO 세계교역전망지수를 보면 작년 1분기(1~3월) 102.3에서, 2분기 101.8, 3분기 100.3에 이어 4분기 98.6을 기록했다.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이다.

최 팀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요인에 세계교역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대통령 비서실장 임무 교대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선임 비서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造船 불황' 한진중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신청

완공 12년 만에...대형상선 건조 사실상 무기한 중단

한진중공업은 8일 자회사인 필리핀 해외현지법인 수빅조선소(HHIC-Phil Inc.)가 필리핀 현지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수빅조선소 완공 이후 12년 만이다. 한진중공업

의 대형상선 건조 사업 또한 사실상 무기한 중단됐다.

회생절차 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조선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필리

핀 수빅조선소의 수주 부진이 심각했다"며 "필리핀 법원의 결정(회생 혹은 청산)에 따라 향후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필리핀 법인의 자산총액은 1조8405억 원으로 수주 잔량은 10척에 불과하고 현재 약 4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중공업은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2006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리핀 수빅조선소 건설을 시작해 2007년 완공했다. 한진중공업은 이후 국내 영도조선소에서 특수선(해군함정 등)을 생산하고 수빅조선소는 중대형 상선을 생산하는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생산 전략을 시행해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전경. 사진제공 한진중공업

김용 총재 ‘중도하차’

김용(사진) 세계은행(WB) 총재가 임기를 3년 넘게 남겨 두고 돌연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김 총재는 이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민간 기업에 합류한다”며 “2월 1일자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 기업으로 가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WB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민간 부문에 합류할 기회가 예기치 않게 왔다”며 “기후변화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신흥시장에서의 인프라 부족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열망은 물론 기후변화와 전염병, 기근과 난민 등의 문제가 규모와 복잡성 모두에서 계속 커지고

“민간기업에 합류할 기회 생겨” 임기 3년여 남기고 돌연 사임 후임선임 트럼프 입김 세질 듯

있어서 WB의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총재로서 이런 모든 도전의 한 가운데 서서 WB를 도운 것은 커다란 특권이었다”고 술회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WB 최고경영자(CEO)가 임시로 총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년 넘게 임기가 남았던 김 총재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세계 최고 국제 금융기구 중 하나인 WB가 리더십을 놓고 혼란과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



베이징/AP연합뉴스

절인 2012년 처음으로 총재 자리에 올랐으며 2016년 가을 연임이 결정돼 2기 임기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까지 5년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양대 국

‘G2갈등’ 불똥 튄 WB

WB지분 16% 보유 美재무부 “對중국 대출 축소” 줄곧 압박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갈등도

제 금융기구인 WB는 정식적인 총재 선출 규정이 없지만 미국인이 총재를 맡는 것이 관례였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국제다자기구에 강한 회의를 갖고 있지만 미국이 WB 의결권에서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재 후임 선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 배경으로는 트럼프 정부와의 불화가 꼽히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WB가 중국에 너무 많은 돈을 관대한 조건으로 빌려주고 있다고 비판,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 130억 달러(약 14조5300억 원) 규모의 WB 증자에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대중국 대출의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했다. 김 총재는 중국 출자 비율을 높이는 한편 대중국 대출 프로젝트를 축소하는 규정 개선을 약속해 간신히 증자를 확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B 입장에서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WB 자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 분열이 깊어졌다고 지적하며 이에 김 총재가 사임하게 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총재는 긴축 재정과 감원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B 직원들은 2016년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내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알버트 비어만 “자율주행, 합리적 가격에 더 안전하게”

〈현대·기아차 사장〉

“기술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R&D) 본부장(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간담회에서 현대차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현대웨이(Hyundai Way)’를 강조했다.

현대차 최초의 외국인 연구개발본부장인 비어만 사장이 말하는 현대웨이는 ‘협업과 동시에 자체 기술도 개발한다’는 명확한 로드맵 아래, 개발 속도보다는 대중적인 가격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비어만 사장은 “자율주행개발센터와

CES서 ‘현대웨이’ 강조… 개발 속도보다 대중화에 초점 “세계 첫 고성능 수소전기차 우리가 만들 것” 자신감 보여

자율주행 담당 기술 조직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서 자율주행은 물론 ICT(정보통신기술) 등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대차는 2022년까지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고객 1000만 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차종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장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고도화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

는 이미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전동화 △커넥티드카 △오픈 이노베이션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비어만 사장은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고성능차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고성능 수소전기차는 시간문제”라면서 “현대차가 가장 앞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개발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다만, 내연기관이 사라지더라도 현대차의

펀 투 드라이브(Fun to Drive)는 죽지 않을 것”이라며 “N브랜드는 EV(전기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를 통해 펀 투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연구개발본부 수장으로 발탁된 비어만 사장은 현대기아차 제품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현대차가 외국인인 비어만 사장을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글로벌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강화를 위한 파격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일 BMW에서 고성능차 개발 총괄 책임자(부사장)로 일하다 2015년 현대차그룹에 부사장으로 합류한 비어만 사장은 짧은 기간 내 현대·기아차 및 제네시스의 주행 성능을 세계적 수준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R&D) 본부장(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본부장은 모든 기술을 관장하면서도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므로 한 기술에만 집중할 수 없다”면서 “모든 부문에 대한 활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유한양행

광고심의의뢰: 2018-1465-0004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니다. ■유한양행 소비자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안에서는, 육체피로!

밖에서는, 눈의피로!

Becom-C

베콤씨

피로회복의 더블효과 온 가족이 느껴보세요!

베콤씨® 정

NEW 휴대가 간편한 PTP포장 출시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IT·모바일>

반도체·IM 양대축 '흔들'... 하반기 회복 기대감

‘빨간불’ 전자 투톱, 올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창립 이후 최고 실적을 거둔 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이어진 덕분이다. 반도체 고점 논란은 재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했고, 신기록 행진은 멈췄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연간 매출 250조 원·영업이익 65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4분기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실제 수치는 낮아졌다.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 사업 부문별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8조 원대 초반으로 전분기(13조6500억 원)보다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가격 하강곡선은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사업도 실적 부진의 한 원인이자 IM(IT·모바일) 부문은 갤럭시S9 시리즈의 판매가 기대 이하에 머물며 영업이익이 1조6000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삼성전자 IM부문 분기

공급과잉 따른 가격 하락세 본격화 TV·가전 마케팅 증가 부정적 요인 하반기 재고 조정·수요 증가 예상 신수종 사업 성장 ‘상저하고’ 전망

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2016년 3분기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1000억 원에 그쳤을 때를 빼면 처음이다.

LG전자의 4분기 어닝쇼크 역시 스마트폰 적자 확대가 컸다. LG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작년 10월 세계 최초 5개 카메라를 탑재한 LG V40 씽큐를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반등의 기회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80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TV와 가전 사업은 두 회사 모두 연말 마케팅 비용 증가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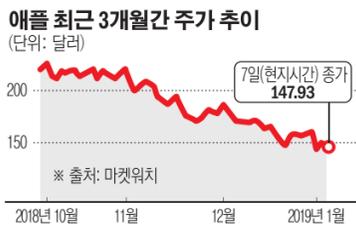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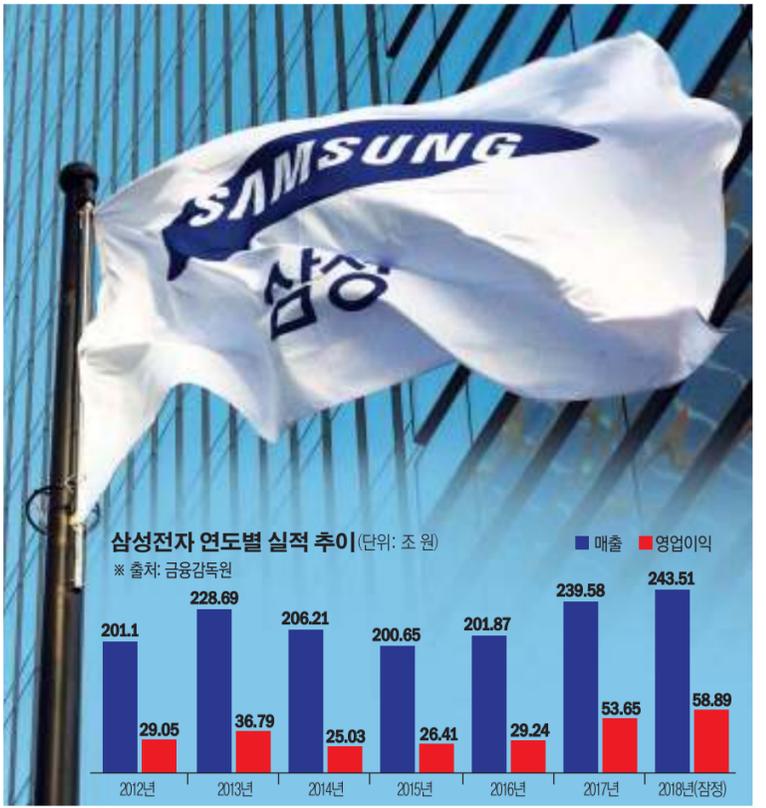
두 회사 올해 실적 전망은 나란히 ‘상저하고’ 패턴이다. 증권사들의 올 1분기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58조4300억 원에 영업이익 11조6400억 원이다. 2분기는 각각 57조8800억 원과 11조3800억 원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수요도 되살아나면서 부활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3분기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0조 원과 1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 공시에 첨부한 설명자료에서 “메모리 사업은 하반기에 성수기 영향과 신규 CPU 확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영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이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상반기까지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인 뒤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성적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TV 사업의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가전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VC(전장) 사업의 경우 자동차용 조명 업체 ZKW 인수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업의 경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송영록 기자 syr@한영대 기자 yeongdai@



IT공룡들 '빅 쇼크'...글로벌 빙하기 오나

애플, 17년 만에 매출 하향조정 이어 삼성도 부진... 소프트뱅크 투자 축소 G2 무역전쟁에 경기둔화 공포 뚜렷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글로벌 IT 업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여든 10조8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18% 적은 것이다.

지난주 애플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삼성마저 부진한 실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성장 둔화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진단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업체이면서 TV 등 다양한 기기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세계 주요 전자업체들에 부품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날 실적 부진 경고음에 글로벌 경기둔화 공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매출 전망 하향 조정 주원인으로 미국과의 계속되는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약화를 꼽았다. 삼성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CNBC방송은 삼성은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 업체들에 메모리칩을 판매하고 현지에 공장도 두고 있다며 미·중 무역 긴장이 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 컨설팅 업체 머어인사이드&스트래티지의 패트릭 무어헤드 사장은 “일부 성장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과거처럼 성장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불확실성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7~8일 베이징에서 차관급의 무역협상을 벌였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7일 이례적으로 회의를 방문해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무역 분쟁을 종식할 합의안 도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3월 1일까지 90일간의 협상 기간 중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0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25%로 높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수개월간의 IT 기업 주가 폭락 직격탄을 맞고 있다.

WSJ은 소프트뱅크가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에 대한 추가 출자액을 20억 달러로 대폭 축소했으며 기존 160억 달러 투자계획은 철회했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 주가도 최근 3개월간 33%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여력이 사라진 셈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유기농 녹차에서 얻은 카테킨을 함유한 메타그린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을 챙겨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혼밥·혼술·혼영... 나홀로족, 소비공식을 바꾸다



'1인 가구 잡기' 나선 유통가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모습이다.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영(혼자 보는 영화) 등은 이미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코노미(1인과 경제의 합성어. 혼자만의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을 잡기 위한 산업계 역시 분주하다. 나홀로족을 위한 제품은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 증가하는 1인 가구... 나 혼자 먹는다 =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8.6%인 562만 가구로 조사됐다. 2015년 27.2%에서 2016년에는 27.9%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홀로족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역시 성장세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식품이다. '가정간편식' 소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야의 상표 출원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정간편식 중 '즉석밥'의 상표 출원은 2013년 43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7년 전인 2011년 8000억 원 규모였던 HMR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 원에 달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시장 규모를 4조 원으로 예상한다. 2023년 전망치는 10조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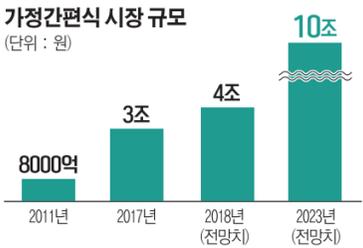
그만큼 바빠진 곳은 식품업체다.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HMR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냉동 식품업체 쉬완스를 2조 원에 인수했다. 2020년까지 HMR 연구에 2000억 원, 인천 통합생산기지 건설에 5400억 원을 투

'나홀로족' 김 씨의 휴일

- 오전 7시**
새벽 배송으로 온 따뜻한 미역국으로 아침식사.
- 오전 10시**
스마트폰으로 영화 예매 후 상영관 끝자리 혼자 앉아 관람.
- 오후 1시**
일본식 라멘집에서 1인 테이블에 앉아 혼밥.
- 오후 3시**
커피숍에 앉아 나홀로 해외여행 일정 계획하기.
- 오후 5시**
대형마트에 들러 1인용 가정간편식 구매.
- 오후 7시**
편의점서 사온 도시락과 맥주로 혼밥·혼술.

즉석밥 상표출원 5년새 6배 증가·2023년 'HMR 시장' 10兆 추산
1인 가구 증가 따라 2017년 CU 편의점 도시락 매출 168% 뛰어

소비 트렌드 리빙으로 옮겨가며 소형 주택 '홈니싱' 수요 확대
호텔업계도 나홀로족 여행 패키지 등 맞춤형 콘텐츠 강화 나서



자할 계획이다. 하림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공장시설에 4000억 원을 투자하며 HMR시장에 뛰어 들었다. 롯데푸드는 지난해 11월 HMR 사업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7만 2728㎡(2만22000평) 부지의 김천공장에 93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전통적인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도 관련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가장 먼저 이마트

가 피코크를 론칭하며 1인 가구 시장 잡기에 나섰다. 이마트 전용 브랜드인 피코크는 2016년부터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에도 진출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 현대백화점은 가정간편식 브랜드 '원 테이블'을 선보였다.

특히 발걸음이 가장 빨라진 곳은 편의점 업체다. 편의점들도 대세에 발맞춰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한 도시락과 단품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혼술족을 위한 안주와 디저트 분야에까지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편의점은 주로 소단위, 소용량 포장 제품을 판매해 1인 가구 증가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곳이다. CU의 도시락 매출은 2014년 10.2%, 2016년 65.8%에 이어 2017년 168.3%로 '나홀로족' 증가와 비례해 늘어났다.

◇ 나 혼자 즐긴다... 가구·호텔업계도 '주목' = 1인 가구에 주목하는 곳이 먹거리 업체뿐만은 아니다. 홈퍼니싱과 여행업계 등도 나홀로족의 마음 얻기에 나섰다. 특

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평수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홈퍼니싱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홈퍼니싱은 홈(Home)과 퍼니싱(Furnishing)의 합성어로 가구,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을 활용해 집 안을 꾸미는 것을 뜻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홈퍼니싱 상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1인 가구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소비 트렌드가 의식주의 최종 단계인 집 인테리어 및 리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홈퍼니싱 인테리어 시장은 2008년 7조 원 규모에서 2016년 12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 18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영국의 고급 리빙 편집숍인 '더런란샵'을 내년 하반기 강남 상권에 약 2314㎡(약 700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한다. 고급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2012년 국내 가구 2위 업체 리바트를 인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종합 건자재 기업 한화L&C까지 사들이며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초엔 국내 가구 6위로 평가 받는 '까사미아'를 인수, 현재 83개의 까사미아 매장을 백화점 인프라를 활용해 5년 내 160여 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리빙 및 홈퍼니싱 관련 고객 니즈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집객 효과도 탁월한 만큼 계속해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텔업계도 나홀로족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롯데호텔부산은 혼자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는 나홀로족을 위해 1인 전용 패키지를 선보였고,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는 밀린 영화와 드라마를 종일 볼 수 있는 '나홀로 미드 정복 패키지'를 내놨다. 올해 역시 나홀로족을 겨냥한 상품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혼자 호텔을 찾는 이들의 연박률이 더 높다"며 "뷔페, 수영장 등을 포함하고, 먹거리 제공을 늘리는 등 패키지 상품의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프로게이머·연예인보다 ‘유튜버’ 될래요”

“인기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될래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는 초·중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5위에 올랐다. 유튜버는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에 이어 초·중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경찰과 법률전문가, 가수, 프로게이머, 제과·제빵사를 제쳤다.

닭고기를 좋아하는 인물이 마찬가지다. 최근 스퀴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닭고기를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도티’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장 여파
초·중학생 희망 직업 5위 올라

는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2위는 개그맨 유재석과 세종대왕, 5위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도티’는 유튜브 게임전문 채널인 도티TV를 운영하는 1인 유튜버다. 구독자만 240만 명이 넘는 그는 한 달 평균 40개 정도의 동영상 업로드한다. 이 중 재생 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하나에 800만 원의 수익을 낸다.

유튜버가 미래 직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유튜버를 이용한 광고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디지털마케팅 전문업체 메조미디어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버가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은 1169억 원으로 시장 전체의 40%가 넘었다.

유튜버가 광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광고 자체가 CF 등을 통해 단순히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에서 상품을 직접 써보고 평가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등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영향력 높은 개인)’에 대한 업계의 선호도가 크다. 이들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스토리를 녹여낸 콘텐츠로 재미를 잡은 것은 물론, 광고를 보고는 알 수 없는 정보까지 전달해 줘 신뢰도가 높다. 친근함을 무기로 연예인보다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느새 산업 분야에서도 대세가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튜버를 이용한 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매우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다. 특히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곳은 소비재를 주로 취급하는 식품·유통업체다.

최근 농심은 ‘스파게티 가르보나라’

TV 광고 모델로 먹방 크리에이터 ‘슈기’를 발탁했다. 그동안 ‘신라면’ 모델에 한정된 ‘신라면 블랙’에 이어서, ‘짜파게티’에 출연 등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온 농심이 인플루언서를 TV 광고 모델로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슈기’는 유튜브 브상에서 167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유명한 먹방 크리에이터다.

백화점 업계 역시 유튜버를 활용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인플루언서 전담팀 ‘인플루언서커머스 프로젝트팀’을 만들었고, 롯데홈쇼핑은 쇼핑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론칭했다. 또 온라인몰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플루언서 브랜드를 따로 모아 카테고리 고리를 만들었다. 남주현 기자 jooh@

최저생계비 못 버는 60대... 20·30대 여성은 범죄 표적

1인 가구의 그늘

서유림(26) 씨는 노량진 공시생 4년 차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원과 고시원을 오가며 매일같이 책과 씨름하는 그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돈은 1만 원 남짓이다.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으로 학원비와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그의 손에 남는 건 40만 원이 채 안 된다. 씬 씬이를 줄이기 위해 점심은 3000원짜리 컵밥으로 때우고 저녁에도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으로 해결하기 일쑤다. 월 25만 원 짜리 고시원도 그에게는 사치다.

영등포에 거주하는 박예순(72) 씨는 나이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둔 5년 전부터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 그의 소득은 월 30만 원 남짓한 기초연금에 폐지를 주워 팔아 만질 수 있는 하루 1만 원 미만의 돈이 전부다. 비가 오는 날이면 폐지 줍기가 녹록지 않아 쉬는 날을 감안하며 폐지를 주워 팔아 버는 돈은 월 20만 원 정도다. 반지하방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0만 원 정도다. 식사는 밥과 김치만으로 해결할 때가 많다.

1인 가구의 어두운 이면이다.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1인 가구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 비중은 28.6%에 달했다. 이 중 20대는 1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1인 가구 수는 81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만 가구가 늘었다.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대·60대 1인 가구 빈곤율 심각 = 20대와 60대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은 3040 1인 가구보다 빈곤율 비중이 높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 가

60대 연평균 소득 1121만원

월세·공과금 빼고 나면 '한숨만'

'구직난' 20대, 빈곤율 10% 넘어

연애·결혼·출산 이어 취업 포기

강력범죄 피해자 89%가 여성

소득 낮을수록 보안 취약지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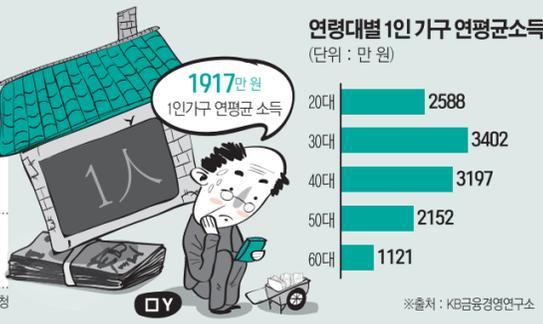
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917만 원이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59만7500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00만3000원을 50%가량 웃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수 존재한다. 바로 60대 1인 가구다. 60대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121만 원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93만4170원이다.

일자리가 없는 20대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펴낸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대 빈곤율은 10.3%에 달했다. 몇 년 전부터 대두된 이른바 'N포 세대'라는 신조어는 20대의 절망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뛰어넘어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N포 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취업마저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20대 1인 가구다.

◇범죄 표적되는 1인 가구 = 최근 개봉한 공포 스릴러 영화 '도어락'은 범죄 대상이 된 1인 가구를 소재로 했다. 혼자 사는 여성이 겪을 법한 내용을 담은 영화 '도어락'은 혼자 사는 원룸에 열려 있는 도어락과 누군가 침입한 흔적, 그리고 같은 원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등을 다뤘다. 제작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구소득·지출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2017년 4분기)	168만 6712	328만 4940	472만 229	529만 2579	532만 7702
지출 (2017년)	177만 1850	292만 5199	405만 1496	489만 2885	528만 4111



진은 이 영화를 '현실 공포 스릴러'라고 말한다.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내용이라 더 공포스럽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비율은 89%다. 소득이 높은 여성이라면 보안이 강화된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피할 수 있지만 여성의 평균 소득을 보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국내 여성 1인 가구는 2005년 175만 3000가구에서 2015년 261만 가구로 10년 새 48% 증가했다.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

비율 또한 50.2%로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20대(15.4%)와 50대(15.3%) 순이었다. 여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56.9%로 가장 많았다.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월세는 저렴하지만 보안은 취약한 주거지를 선택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년 1인 가수도 위태롭다 =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4050 중년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 노숙자의 상당수가 이 연령대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인

가구의 인구 경제적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40대 이후부터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아진다. 40대 다인 가구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11.6%에 불과하지만 1인 가구는 24.3%로 두 배를 훌쩍 넘는다. 50대의 경우 1인 가구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41%까지 올라간다.

노인 1인 가구는 그나마 각종 복지 혜택이 제공되지만 중년 1인 가구는 이 같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일용직 벌이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겉도는 일자리 정책이 문제다

1인 가구 중 가장 빈곤에 허덕이는 세대는 60대다. 이들 대부분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정부지원금과 소일 거리의 의존해 생계를 이어간다. 20대는 취업절벽으로 인해 60대 1인 가구와 고민의 교차지점이 겹친다. 20대와 60대 1인 가구는 사실상 '일자리'라는 공통의 난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대에 일자리 대책, 60대엔 복지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종합대책은 21 회에 이른다. 그럼

**취업률 올리기 급급한 정부
단기성과 위해 예산만 낭비
초고령사회 日 정책 주목해야**

에도 20대 실업률은 10%까지 올라갔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겉도는 이유는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아져서다. 정부가 2017년과 지난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6조 원에 달하지만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대책이 단기적 취업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보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미래전략포럼에서는 다양한 대안도 나왔다. '한국형 청년보장제도'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다. 청년보장제도는 우

선 종전에 직업훈련과 고용보조금, 공공근로, 청년수당, 중소기업 임금지원 등 부처별로 나눠 집행하던 예산을 통합해 청년이 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대책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이 포함됐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29.5% 증액한 8220억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61만 개로 10만 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공익 일자리 6만 9000개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60대 1인 가구(81만 가구)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중 770만 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일하는 노인이다. 이는 2006년 도입한 '고령일자 고용안정법'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마지막 치과치료 언제였나요?

잇몸을 지키는 Daily Care, 검가드

액상 타입으로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잇몸 질환 원인균 99.9% 제거

검가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 ▶ 양치질 등 작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 ▶ 평소보다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
- ▶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치은지수(GI)개선 효과 정도(6주사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6주 임상]

■ 잇몸질환 원인균 잔여발리스균 99.9% 살균효과(시험기관·노르젠(주))
■ TPA 성분으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 판테놀 성분으로 잇몸을 탄탄하게

잇몸가드 검가드

노영민 실장 “사람·정책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

靑 정부 강기정·소통 윤도한 임명
친정체제 구축으로 국정 장악 의지
노 “비서실 ‘춘풍추상’ 되새겨야”
비서관은 오늘부터 순차적 교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입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후임에 강기정 전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후임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원조 친문 인사를 전면으로 포진시켜 친정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잇단 사고로 하이해진 청와대 분위기를 다잡고

대통령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을 앞세워 민생·경제에 ‘울인’해 가시적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대 국회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정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시로 상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 실장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77년 구국 선언과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거부 투쟁,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으며 이로 인해 제적됐다. 1990년 졸업했다. 17대 때 입성한 3선 의원으로 시집 강대 논란으로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조직본부장직을 맡은 최측근이다.

노 실장은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일찍 와서 몇 (비서진의) 방을 들러 봤는데,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걸려 있는 것을 봤다”며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한자성어”라고 말했다. 춘풍추상은 ‘지기추상 대인춘풍’을 줄인 사자성어로,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뜻이다.

전남 고흥 출신인 강 수석은 3선 의원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을 때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호위병으로 통한다. 고려대(사회학과) 출신인 윤 수석은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통일외교부 차장, 사회1부장 대우, 문화과학부장, LA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명예퇴직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어 눈길을 끌었는데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수석급 인사에 이어 9일 권혁기 춘추관장 등 일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청와대 신입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현 제2부속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에 신지연 현 해외언론비서관이 내정됐다. 또 의전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한 일부 인사와 송인배 정부비서관과 남요원 문화비서관도 교체 대상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와 일부 공석 비서관은 이날 또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조현욱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형배 자치발전·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2008년 이전 등록 차량>

<2000만원>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새차 사면 113만원 절감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2000만원 승용차 구입땀 43만원 혜택
신제품·서비스 규제 면제·유예... 민자도로 관리·감독 개정안 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종전 5%에서 3.5%로 30% 내렸는데, 이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과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출고가액이 2000만 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 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 원 적은 100만 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 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가령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 원(79%) 줄어든 30만 원이 된다. 세종=박영범 기자 riby@



손 모은 노사정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이재갑(가운데) 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회장, 이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文 대통령 정부 질책은 여론의식한 생색내기”

통계청 과태료 부과·국민연금 개편안 지시 등 대표적 사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정부를 질책하는 일이 잦아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불응 과태료 논란과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개편안 재검토 지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6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가계동향조사 불응 과태료 논란과 관련해서 “단순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해명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라고 질타했다. 통계청에 대한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은 없었다고 한다.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도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두 부처에서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애초에 통계청은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었고, 복지부는 개편안을 복수로 마련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위한 실무선의 협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개 비판은 ‘대통령이 여론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쇼맨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계동향조사 논란도 그렇고, 국민연금 논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재민 사태와 김태우 사태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국무총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사안들에 대해서만 여론을 떠보듯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색내기 쉬운 사안들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은 반복되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과 지시가 ‘보여주기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통계청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현대차 경유차 3종 7만9000대 리콜

배출가스 기준치 ‘부적합’ 판정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 3개 차종 7만9000여대가 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개선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7776대다.

환경부의 결함 확인검사 결과,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

현대차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 리콜

(단위 : 대, 괄호는 해당 생산기간)

배출가스 인증번호	시정대상 부품	대상 수
그랜저 2.2디젤 (2014. 5. 12~2016. 11. 10)	전자제어장치 (ECU)	3만945
메가트럭(와이드캡)현대그린시티 (2015~2016)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1만4813
아에로타운(2017~2018. 8. 26)	매연포집필터(DPF)	1만3366
뉴기온티, 마운티(2015~2016)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1만9597

※출처 : 환경부

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다. 현대자동차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김정은 訪中... 2차 북미정상회담 前 전략 조율

단계별 비핵화·종전선언 등 美 압박... 경제협력 강화 분석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전용 열차를 타고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전 조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풀이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대남 및 외교 정책 책임자인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과학기술·교육 담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수행했다.

8일 생일을 맞은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터운 우의를 보여줌으로써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종전선언 등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이례적으로 3박 4일의 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북중, 북미 간 교류가

서로 순순환해서 하나의 발전이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2차 북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런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야 3당, 기재위 ‘신재민 청문회’ 추진 합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삼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재위 청문회가 열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울러 야 3당은 청와대 특감반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유종현 기자 lamuziq@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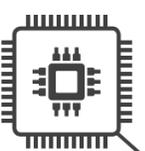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기술株 피난처’ 된 아마존 22년 만에 ‘세계 시총 1위’

애플 추락 반사익... 안정적 성장
든든한 리더십 바탕 MS도 추월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의 돌풍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기술주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나스닥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전장보다 54.12포인트(3.44%) 오른 1629.51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7970억 달러(약 891조6039억 원)로 종가 기준으로 MS를 처음 넘어섰다. MS는 전장보다 0.13포인트(0.13%) 오른 102.06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7830억 달러였다.

아마존이 시총 기준으로 1위가 된 것은 1997년 상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주가가 2050.5달러까지 오르며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 10월 이후 기술주 매도 국면에서 추락하며 12월 말에는 주가가 1307달러까지 하락했다.

니혼게이지신문은 2013년 8월부터 선두를 지키던 애플이 지난해 MS에 추월당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마존의 선두 차지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도 밀려 현재 시총 4위에 머물러 있다.



피보탈리서치그룹의 브라이언 워저 애널리스트는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소비자 및 IT 양쪽에서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CNBC방송은 기술주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아마존에 대해서만 큰 기대를 거두지 않은 이유를 5가지로 요약했다. 업계 1위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과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분야와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등 신성장 동력과 △견고한 리더십 △낮은 변동성 등이다.

MS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여전히 이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연간 매출은 230억 달러를 넘어섰고 클라우드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다. 아마존은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자상거래 규모의 절반이 아마존을 통해 이뤄졌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견고한 리더십도 투자자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다. 특히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임원 그룹 ‘S-팀’이 베이조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S-팀 구성원들은 모두 20년 넘게 아마존에서 근무하며 베이조스를 곁에서 보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아마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 차례의 본사 수색 등에 시달릴 때도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최근 기술주 폭락 국면에서 피난처로 꼽힌 이유라고 CNBC는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카를로스 곤, 법정 첫 출두 “난 결백... 혐의 터무니없다”

체포 50일 만에 모습 드러내
해외언론, 日 장기구금 비판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64) 전 회장이 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작년 11월 19일 첫 번째 체포 이후 50일 만이다.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구류사유 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이날 10분 간 법정 출석했다. 곤 전 회장은 검은 색 정장에 노 타이 차림,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구금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였다.

증인대 앞에 앉은 곤 전 회장은 준비해온 영문 서면 진술서를 읽는 형식으로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나는 결백하다(I am innocent)”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 일본 검찰에 철저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곤 전 회장은 “나는 진심으로 닛산을 사랑하고 감사해왔다”며 “회사 대표로서 훌륭하게 합법적으로 행동해왔다. 내 단 하나의 목표는 닛산을 지원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고 실체가 없는 주장들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됐다. 나는 결백하다”며 약 10분 간의 의견 진술을 마쳤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 축소 신고와 개인적인 투자로 손실을 본 18억5000만 엔(약 186억400만 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공개진술하는 모습이 스케치로 묘사돼 있다. 도쿄/AP연합뉴스

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1일이 첫 번째 혐의에 대한 구금 만료일이었으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제기해 재체포를 단행했다.

곤 전 회장 사건을 둘러싸고 해외 언론 사이에서는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기업 회장을 체포한 이후 계속 구금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며, 직접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는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구속됐다”는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한 기사에서 장기구금의 구금을 비판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한 체포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구금 연장을 반복하는 일본의 사법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구금 유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나 변호인은 8일 안에 도쿄지법에 구류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약수하는 인도-노르웨이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8일(현지시간) 뉴델리의 대통령 궁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다. 솔베르그 총리는 인도와 노르웨이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전날 인도를 방문했다. 인도에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혁에 맞서 1억8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8~9일 이틀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협상권과 견습생 제도를 유연하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노동계는 “노조에 개입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델리/로이터연합뉴스

릴리, 항암제 개발사 ‘록소’ 9兆에 인수

새해 들어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인수·합병(M&A) 열기가 뜨겁다. 미국 제약업체 일라이릴리가 80억 달러(약 9조 원)에 표적 항암제 개발업체 록소 온콜로지(Loxo Oncology)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일라이릴리 사상 최대 규모 M&A다.

일라이릴리의 대니얼 스코브론스키 최고학술책임자는 “핵심적 ‘종양 의존성(Tumour dependencies)’을 표적으로 하는 맞춤형 치료제 사용이 갈수록 암 치료에 견실한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록소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융합에 대한 억제약으로 암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록소의 제품군에는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항암제 ‘비트랙비(Vitrakvi)’는 물론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여러 유전자 표적 항암제가 포함돼 있다.

인수 조건에 따라 록소 주주들은 4일 증가 대비 68%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235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인수는 이번 1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스닥거래소에서 록소 주가



는 이날 66% 폭등했다.

FT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요법들이 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약업체들이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체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M&A에도 전력을 쏟는 것이다.

일라이릴리의 록소 인수는 지난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콧이 난치성암 치료제 개발업체 셀진을 무려 90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합의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 인상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제약업체들은 가격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항암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비싼 수수료’ 질린 월가 금융사들 “새 거래소 설립”

모건스탠리 등 9개 업체 출자, NYSE·나스닥에 ‘도전장’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기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아성을 무너뜨릴 저가형 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 등 월가의 9개 대형 금융사들이 ‘멤버스 익스체인지(Members Exchange·MEMX)’라는 이름의 비영리 거래소 설립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존 증권거래소들의 각종 서비스 수수료 부담으로 고심하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새 거래소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모건스탠리 외에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UBS,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시타델 증권, 버추파이낸셜(Virtu Financial), 찰스슈왈브,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TD

아메리트레이드 등이 참여한다.

주식 등의 초고속 거래(HFT)를 다루는 버추파이낸셜의 더글러스 시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최대의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MEMX 설립 이유를 밝혔다.

새 거래소가 설립되면 기존 거래소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10여 개의 거래소와 30개의 대체 거래소가 격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NYSE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털엑스체인지(ICE)와 나스닥, CBOE 글로벌마켓(CBOE Global Markets) 3대 그룹이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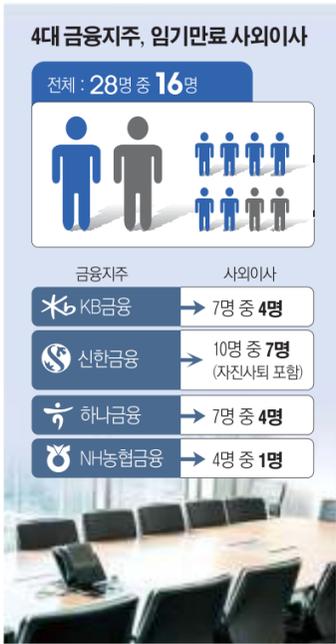
있다. 다만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 해도 MEMX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기 어렵다. 새 증권거래소가 기존 거래소들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설립된 IEX그룹은 유일한 독립 거래소이지만 미 주식 거래량의 2.5%만 취급하는 수준이다.

WSJ은 이들 금융사가 MEMX 설립을 위해 이미 7000만 달러(약 784억 원)를 확보했고 연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설립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C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 걸리지만 현재 미국 정부기관 폐쇄에 따라 SEC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다운 기자 gamja@

금융당국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요구 금융권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

KB·신한·하나·농협 금융지주 28명 중 16명 임기만료·공석
사외이사 전문·독립성 강화 등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포함 3월 정기주총서 교체 가능성



주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상당수가 교체될 전망이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절반 이상이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사외이사 역할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NH농협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28명 중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거나 현재 공석인 사외이사는 총 16명(57%)이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유석렬·스튜어트 솔로몬·박재하·한중수 사외이사 등 4명이 3월 임기를 마친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어 이들에게 중임 희망 의사를 물었고, 한 이사만 중임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10명 중 총 7개 자리가 비었다. 박철·이만우·하리카와 유카·필립 에이브릴·이성량·박인순 사외이사 등 6명의 임기가 3월 끝난다. 주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 말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회에 선임돼 사임했다. 나머지 사외이사가 중임하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구해야 한다.

계다가 대법관을 지낸 박병대 사외이사가 '재판 거러 의혹'으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금융은 다음 달 8일까지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는다.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윤성복·박원구·차은영·허운 사외이사 등 4명이 3월 임기를 마친다. 농협금융은 사외이

사 4명 중 정병욱 사외이사의 임기가 3월 만료된다. 이달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는 이미 사외이사 5명을 구성했다. 사외이사는 총 6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이번에 대폭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연임 시 반드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무기명 설문조사 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도록 사외이사를 순서대로 교체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 핸드북' 제작 막바지 작업 중이다. 지난해 초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장 점검의 후속 조치다. 핸드북에는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바람직한 지배구조 사례 등을 담는다. 핸드북 제작을 끝내는 대로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을 모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당시 2~3곳을 제외하고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미 경영진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방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KB국민은행 노동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총파업은 경고성 1차 총파업이다"라며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순차적으로 파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국민銀 노조, 30일 2차 파업 노사 쟁점 조율 장기화 조짐

호봉상한제 등 극명한 견해차 노조 "중노위 사후 조정 검토"

KB국민은행 노조가 1차 파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서 큰 틀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으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최하단 직급인 'LO' 직원 처우 개선 등에서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향후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간 직접적인 대화에 진전이 없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은 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충청·강원·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들(노조 추산 8500여 명·사측 추산 5100여 명)도 전날 열린 전야제를 포함한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총파업 동안 노사는 여전히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밤 11시께 진행된 협의에서는 대표단까지도 가지 못하고 실무진에서 파행했다. 그만큼 노사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파업의 배경은 총 4가지다. 신입행원 호봉 상한 제한(페이밴드) 폐지와 과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O 직급 여성노동자 경력 추가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폐지 등이다. 성과급 부분에서는 노사 간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 이들 쟁점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박홍배 국민은행지부 노조 위원장은 '제3차 조정'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두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진전이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조정의 뜻도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등 가능한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간 협상과 중노위 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중노위가 다시 중재에 나서는 것이다.

여러 교섭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 적어도 이달까지는 노사 간의 부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파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파장은 이번 파업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이달 30일부터 2~3일가량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3월까지 총 5차례의 파업을 예고했다. 설 연휴에는 조합원 집단 휴가도 고려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파업으로 고객들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와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객신산 기자 jinsan@



농협銀 '뱅크 워드 디저트 1호점' 오픈 NH농협은행이 울산 남구에 은행 영업점과 빵집을 결합한 '뱅크 워드 디저트' 1호점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뱅크 워드 디저트는 은행과 빵·음료를 파는 베이커리가 한 공간에 있는 점포다. 화학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밀로 제빵하는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인 '빵드감뽀뉴'와 결합해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여섯번째), 박영태 빵드감뽀뉴 대표(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신보-신한銀, 일자리 창출 5630억 지원 '맞손'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사회적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90억 원과 보증료지원금 23억 원을 더해 총 563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중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

감)를 우대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나머지 기업은 신한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3억 원을 더해 총 2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의 보증료

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신한 드림(Do Dream)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축적된 금융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 역량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안 또 거부

"이행 가능성 등 떨어져 불승인"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재차 거부했다. MG손보는 3월 초까지 자본확충안을 포함한 수정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MG손보 경영개선 계획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불승인'으로 결론 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MG손보 경영개선안 심의 결과는) 불승인 됐다"며 "(이행안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G손보 측은 2개월 안으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제출받으면 구체적인 재심의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MG손보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영개선안을 제출할지 방법과 그 내용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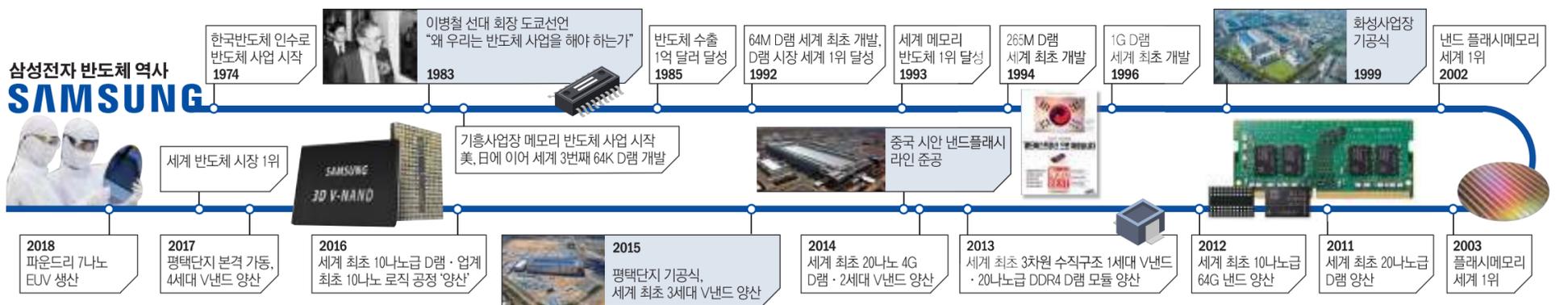
이번 경영개선안은 MG손보가 지난해 10월 금융위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고 지난달 14일 보고한 내용이다. 당

시 보고서에는 증자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급박한 지급여력(RBC) 비율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MG손보 RBC 비율은 지난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2017년 110%대였던 RBC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3.93%를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82%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3분기 소폭 반등해 86.5%를 기록했지만, 금융당국 기준치인 100% 미만을 기록 중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이후 1차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불승인 됐다.

현재 최대 관건은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 증자에 직접 참여하느냐다. MG손보가 지난해 120억 원 이익을 기록하면서 2017년에 이어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대주주의 대규모 자본확충 없이 RBC 비율 회복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무적 투자자일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MG손보가 지난해까지 순이익 상승세를 유지한 만큼 4분기 RBC 비율 '100%'를 넘길 수 있어 3차 경영개선안 승인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반도체 포기하라”던 인텔 쿯대 누르고 왕좌 오르다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 ① 초일류 기업 되기까지
- ② 인텔 꺾은 ‘초격차’ 반도체
- ③ 스마트폰 위기를 기회로

“돈을 벌기는 쉽다. 그러나 사업보국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반도체,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D램을 한다.”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83년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의 20%를 책임진 반도체는

사업 초기 냉담했던 시장

인텔 “이병철 회장 과대망상”

1992년 D램 첫 세계 1위

2008년 적자 속 ‘초격차’ 투자

5G·AI 시대 전망 더 밝아

이렇게 출발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D램 등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사업초기 세상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인텔은 이병철 회장을 심지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교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후 삼성그룹 몇몇

사장들이 당시 신임 이병철 회장에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라고 제안했다가 크게 혼나기도 했다.

1989년까지 D램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3년 뒤인 1992년 1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이후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인텔이 24년간 고수하던 왕좌를 탈환해 세계 최고 반도체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위기도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8년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분기별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로 94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적자의 60%가량은 당시도 세계 1위였던 메모리 반도체(5600억 원)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초(超)격차’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자신의 책 ‘초격차’에서 “초격차는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도록 구성원들의 ‘격(格)’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는 물론 차차세대까지 대비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수년 이상 벌리는 전략이다.

초격차 기술력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황까지 겹치며 지난해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이익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슈퍼 호황이 꺾이자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7분기 만에 내리막 길을 걸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초격차 전략을 통해 1등 반도체 기업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非)메모리 분야 역시 세계 1위를 넘볼 계획이다. 업황 사이클의 진폭이 큰 메모리 반도체의 지나친 집적을 막고, 비메모리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상용화가 예상되는 5G(5세대 이동통신)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홍수 시대’에 반도체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韓조선 7년 만에 수주 1위

전 세계 44% 점유...中 32%

한국 조선업이 지난해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국가별 연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이 1263만CGT(44.2%)를 수주해 국가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915만CGT(32%)를 수주한 중국이었고 360만CGT(12.6%)의 일감을 따낸 일본이 뒤를 이었다.

연간 수주량 순위에서 2011년 1위였던

한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으로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일감을 싹쓸이하며 1위에 다시 등극했다. 작년 조선업황은 확연히 회복세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1~12월 누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1340만CGT, 2017년 2813만CGT, 2018년 2860만CGT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87만CGT 가운데 한국이 150만CGT로 가장 많은 일감을 따냈고 중국은 34만CGT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2019년형 볼트EV 사전 접수

쉐보레는 9일부터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서 전기차 볼트EV(Bolt EV)의 2019년형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볼트EV는 내연기관 차량 이기터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수의 경쟁 전기차 모델들과는 달리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또한, 고성능 경량 차체에 60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대출력과 36.7kg.m의 최대 토크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수평으로 차체 하부에 배치한 배터리 패키지는 넓은 실내 공간 확보를 가능케 한다. 가격은 △LT 4593만 원 △LT 디럭스 4693만 원 △프리미어 4814만 원이다.

사천제공 한국지엠

LG상사, 오만 유전개발 30년 만에 철수

8광구 매장량 줄어 수익 악화 유전·가스전 3개국으로 축소

LG상사가 오만 8광구 사업을 3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전 발굴부터 채굴까지 전 과정을 거친 자원개발 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LG상사가 오만 8광구 사업을 이달 3일부로 종료하고 사업권을 오만 정부와 국영기업인 오만 오일 컴퍼니(OOCEP)에 반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달 초 오만 정부와 계약을 맺었던 오만 부카 가스전과 웨스트 부카 유전에 대한 광권이 끝나며 사업도 종료됐다”고 말했다.

LG상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997년 2월 오만 북부해상에 위치한 부카 유전의 지분 50%를 매입하며 본격적으로 오만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오만 8광구 내 웨스트부카 유전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유를 생산했다. 당시 부카 유전은 원유 매장량 1400만 배럴, 천연가스 15BCF, 웨스트부카 유전의 경우 원유

매장량이 3000만 배럴로 추정됐다.

오만 8광구는 초기에 LG상사의 실적을 이끄는 핵심 자원사업이었으나 생산 중단, 매장량 감소 등의 악재가 발생하며 수익성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오만 8광구는 2012년 해저 파이프라인 구간이 막히면서 원유 생산이 중단됐고 5개월간 파이프라인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2년 뒤인 2014년에는 광구의 매장량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치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광구 수명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14년께부터 오만 8광구의 석유 선적분의 계산이 이월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또 2017년 2분기, 지난해 1, 3분기에도 수익 인식이 이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이번 오만 8광구 사업 종료로 LG상사의 유전·가스전 사업은 카타르 LNG, 베트남 11-2 가스전, 카자흐스탄 아다(ADA)광구 등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갤럭시M’ 인도서 베일 벗는다...샤오미와 1위 다툼

새 저가 스마트폰 라인 이달 출시 매장보다 온라인 판매 집중 샤오미 오프라인 전략과 반대

삼성전자와 중국 샤오미가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기존과 다른 판매 전략을 구상하며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인도에서 새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M10과 M20을 출시한다. 갤럭시 M시리즈는 저가 보급형으로 삼성전자가 신형시장 공략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이 제품이 베일을 벗는 것이다.

출시될 제품의 사양을 살펴보면 M10은 엑시노스 7870 칩셋에 3GB 램, 32GB 저

장용량을 갖추고 LCD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M20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1300만·500만 화소 후면 듀얼 카메라를 갖추고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노트9(4000mAh)보다 1000mAh 큰 5000mAh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갤럭시 M은 온라인 유통망 맞춤형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에서는 도소매 소비자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세일이나 사은품 증정 같은 여러 프로모션이 오프라인보다 많기 때문이다.

과거 오프라인 판매를 중시한 삼성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젊은 층, 판매망 없는 지역 소비자까지 더 끌어안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그동안 온라인 독점 판매에만 주력한 샤오미는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나섰다. 인도 전역에 500개의 ‘mi 스토어’를 갖춘 샤오미는 올해 말까지 5000개를 더 구축할 계획이다. 매장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인도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샤오미는 2017년 4분기 점유율 27%를 기록, 처음으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에는 점유율 31%로 점유율 25%의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 벌였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서 지난해 2분기에는 조사 기관마다 1위 업체가 다를 정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열정가득 청년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끝없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도록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KB와 함께 이룬다] Dreaming Job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5년간 1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직·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일으켜 예비 취업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돌 말리는 TV, 걸어다니는 차...SF, 현실이 되다

노인 보살피는 삼성 로봇
안 볼 땐 말아넣는 LG TV
바퀴 한계 깬 '4족 보행' 현대차
핵심 제품 글로벌 이목 집중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들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화면을 등글게 말았다 펴는 TV, 걸어 다니는 자동차, 노인을 보살피는 로봇 등 국내 기업들의 혁신 제품은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열띤 취재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LG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19'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화면을 말거나 펼 수 있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을 처음 공개했다. 롤러블 TV는 LG전자가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선보인 혁신 기술과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과 박수를 이끌어내며, 청중을 압도했다. LG전자는 "TV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Revolutionary), 롤러블(Rollable) TV로 공간을 재정의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Redefine the Space)"는 의미를 담아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모델명: R9)로 명명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은 세계 최초로 화면을 등글게 말았다 펴는 플렉서블 TV다.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에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는다. 덕분에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TV를 보지 않을 때는 깔끔한 사각 형태의 폼 팩터로 고급 오디오를 연상케 한다. TV를 볼 때만 화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형 유리창 앞, 거실과 주방 사이 등에 두면, 평상시에는 전망을 즐기거나 개방감을 유지해 주고 원할 때만 화면을 펼쳐 TV를 시청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곡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올레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연내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개발된 '삼성봇(Samsung Bot)'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GEMS)'을 처음 공개했다. '삼성봇 케어'는 혈압, 호흡 측정 등 건강 상태와 복약 지도 등 실버 세대의 건강과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노인의 낙상, 심정지 등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119에 긴급 연락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즉각 알려준다. 삼성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공기질 센서와 연동해 집안 공기를 관리하는 '삼성봇 에어' △소풍용이나 음식점, 상품매장 등 리테일 매장에 맞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삼성봇 리테일'도 선보였다.

현대차는 걸어 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Elevate)' 콘셉트카를 최초 공개하고 축소형 프로토타입의 작동 모습을 시연했다. 4개의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다. '엘리베이트'는 바퀴가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무대를 걸어 다니다가 설치된 계단을 손쉽게 오르내리는 모습, 다리를 접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변신하는 모습 등을 선보여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존 서(John Suh) 현대크레들 상무는 "로봇 다리가 달린 자동차가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지도 모른다"며 "엘리베이트는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개념 이동수단으로서 미래 모빌리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세계 최초 롤러블 TV 팀 알레시 LG전자 미국 HE제품마케팅 담당이 7일(현지시간)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세계 최초의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를 소개하고 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은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에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는다. 사진제공 LG전자



건강·공기 관리자 삼성봇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삼성봇을 선보였다. 삼성봇은 가족 건강을 체크하는 삼성봇 케어와 공기를 관리하는 삼성봇 에어,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는 삼성봇 리테일 등 3가지 로봇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인공지능 8K TV 취향 저격 콘텐츠 추천

삼성전자가 'QLED 8K' TV 98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인공지능(AI)으로 궁극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QLED 8K TV 98형을 공개하며 TV의 초대형·초고화질 트렌드 속에 AI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9년형 스마트 TV로 '뉴빅스비'가 적용돼 더 자연스러운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시청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유니버설 가이드'의 진화를 직접 시연해 호평을 받았다. TV를 켜면 '유니버설 가이드'가 사용자가 즐겨보는 축구경기를 추천해주고 경기 시작 전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면 '어제 본 거 틀어줘'라든지 '10초 뒤로 돌려줄래?'와 같은 명령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특히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2019년형 스마트 TV에 TV 제조사로는 최초로 아이튠즈(iTunes) 서비스를 탑재하고 아마존·구글의 AI 스피커와도 연동해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선보인 QLED 8K 98형 신제품은 CES 혁신상을 받은 AI 기반 '퀀텀 프로세서 8K' 외에 업계 최초로 HDMI 8K 60P 규격(HDMI를 통해 8K 콘텐츠를 전송하는 규격으로 1초에 60프레임의 영상을 전송)을 장착하고, AI 코덱을 적용해 소비자가 8K 콘텐츠를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코웨이 "북미 비데 시장 진출"

4년 연속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2019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하는 코웨이가 비데 사업으로 북미 시장 진출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비데 사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북미 가정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발 및 론칭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메가 시리즈'를 공기정정기, 정수기에서 비데로까지 넓힐 계획이다.

코웨이는 "북미 시장에 선보일 비데 브랜드는 '비데메가'로 정했다"며 "코웨이만의 비데 슈류 및 살균 기술력과 메가 시리즈의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비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이번 CES에서 세계적인 디자인어 카피 라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인텔리케어 카피 비데'도 선보인다. 핑크, 골드, 실버 등 다양한 색상 및 물방울 모양의 독특한 커브 디자인으로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이번 '2019 CES' 코웨이 전시 콘셉트는 '일상 생활에 혁신적인 편리함과 행복감을 전하는 코웨이, Being Well, Feeling Good'이다.

코웨이 전시장은 △위터케어존(정수기) △에어케어존(공기정정기) △바디케어존(비데, 연수기) △리빙케어존(안마의자) △슬립케어존(매트리스) 등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총 33종의 혁신 제품,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계시장에 웰빙 라이프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마음 읽는 AI 나와야 한다”

박일평 LG전자 사장 개막연설

“기술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있는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파크MGM호텔에서 열린 CES2019 개막기조연설 무대에 오른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은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박 사장은 “지난 100여 년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의 발전으로 집안일로 보내는 시간이 약 75% 줄었지만, IT 혁신으로 인해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인지노동’의 양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전자의 비전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더 나은 삶을 도와주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가(lifestyle innovator)’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 주제도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an Even Better Life)’이었다.

그는 “인공지능은 고객의 명령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의도와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며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말하지 않은 것조차 읽어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인공지능이 고객이 필요



박일평 LG전자 사장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CES 개막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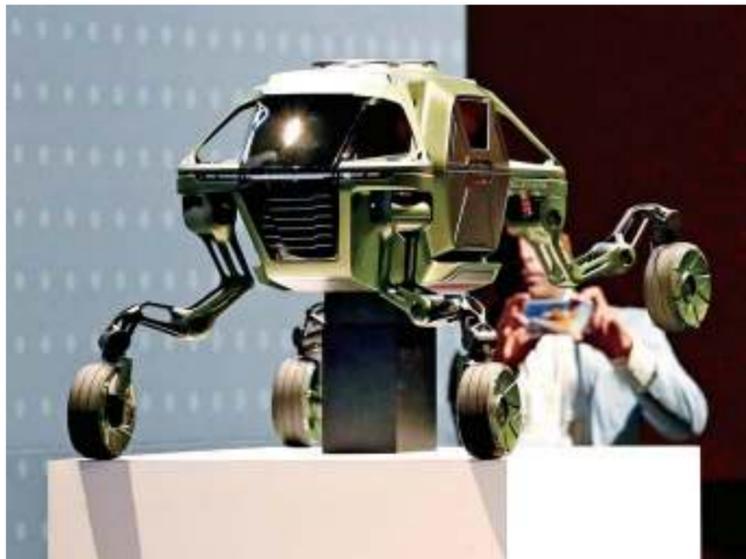
로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진화하는 지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전자는 로봇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LG CLOi GuideBot)'이 박 사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LG 클로이는 CES 기조연설 공동연사로서 무대에 오른 첫 번째 로봇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레시피 알려주는 냉장고 CES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인공지능 '뉴 빅스비'가 적용된 신형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 패밀리허브의 홈시는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며 가족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패밀리보드' 기능도 추가됐다. 라스베이거스(미국)/연합뉴스



사족 보행 콘셉트카 현대자동차의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Elevate) 콘셉트카'. 엘리베이트는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자동차가 가기 어려운 계단은 물론 재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신개념 이동 수단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연합뉴스

SKT, 美 최대 지상파와 합작사 설립... 20兆 시장 정조준

SK텔레콤이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인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합작회사(JV)를 설립해 20조 원대 미국 차세대 방송 솔루션 시장을 공략한다. 연초 옥수수(oksusu) 사업조작과 국내 방송 3사의 통합법인 출범 이후 해외 방송사와 차세대 방송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7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싱클레어와 JV 설립 관련 협약식 맺었다. 양사는 JV에 각각 1650만 달러(184억 원)씩 모두 33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 경영에 나선다. JV는 올 1분기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CES 2018'에서 ATSC 3.0 방송 주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이후 1년 만에 JV 설립을 마무리 지었다. 싱클레어는 2017년 기준 가구 단위 시청 점유율 40%, 연간 매출 2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 173개 TV 방송국과 514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JV는 미국 방송업계의 대전환기를 맞아

美 점유율 40% '싱클레어'와 CES서 JV 설립 관련 협약식 184억씩 투자 올 1분기 출범 ATSC 3.0 장비 등 공동개발 차세대 방송솔루션 시장 공략

차세대 방송 시장 선점에 나선다. 미국 방송업계는 2018년 차세대 방송 표준 ATSC 3.0을 제정하고 기존 ATSC 1.0 대비 한층 진화한 방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 규격으로 이미 국내에선 2017년 상용화(UHD 방송)했다.

ATSC 3.0 방송 환경에서는 방송 주파수를 통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방송망과 통신망(LTE, 와이파이 등)의 이중 결합도 가능해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디어 사업자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 호텔에서 열린 SK텔레콤-싱클레어 간 합작회사 설립 관련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호(왼쪽) SK텔레콤 사장이 크리스토퍼 리플리 싱클레어 방송 그룹 CEO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있게 된다"며 "통신 주파수보다 도달 범위가 넓고 운영 비용이 저렴한 방송 주파수의 장점을 활용해 서비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JV는 ATSC 3.0 방송 솔루션과 장비를 공동 개발해 연내 미국 내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는 향후 10년 이

내에 미국 전역의 1000여 개 방송국들이 모두 ATSC 3.0 기반 솔루션, 장비를 앞다퉀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사는 JV를 통해 미국 방송국에 선제적으로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ATSC 3.0 방송 솔루션이 상용화되면, 개인 맞춤형 광고, 차량 내 지상파 방송 및 맵 업데이트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한다. 방송 주파수도 사용자의 개인 IP(Internet Protocol)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 사업자와 사용자의 스마트폰·차량·TV 간에 양방향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합작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추가 사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 차세대 방송 솔루션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며 "5G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올해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 골든타임”

업계 신년인사회...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올해가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안건준(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벤처기업협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업계 6개 유관단체가 새해를 맞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안 회장은 “작년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논란, 카풀로 대변되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뿐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등 열악한 대외 환경까지 벤처인들에게



가했다.

이어 “특히 혁신벤처 업계가 공동으로 만든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에서 17개로 외연을 확장해 민간 벤처활동과 정책 제언을 확실히 했다”며 “160개 정책 발표 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25개 과제는 완전히 해결했고, 60여 개 과제는 부분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참석 인사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기부는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힘든 한 해였다”면서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코스닥시장 활성화, 스케일업 중요성 부각 등 희망을 본 것도 사실”이라고 평

방식으로 창업벤처 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로 인해 신산업 할 수 없고, 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듣는데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혁신벤처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며, 동시에 우리 국회·정부·청와대가 마인드 혁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봉 중소기업육성추진단 이사장, 정운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KT가 운영하는 5G버스.

사진제공 KT

KT 5G 버스, 서울 도심 달린다

세계 첫 5G 상용 네트워크 적용 이동 중에도 고품질 미디어서비스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행

세계 최초로 5G 상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KT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5G 체험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24일까지는 광화문,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강남역 일대에서 운행한다.

KT는 대형버스에 5G 모바일 핫스팟(MHS)을 탑재해 5G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다.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WiFi)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투명 디스

플레이를 활용해 꾸미진 5G 버스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기기라이브 TV 등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기기라이브 TV는 스마트폰 등 별도의 단말이 필요 없는 무선 기반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다. VR HMD(Head-Mounted Display)만 쓰면 스포츠 VR,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다. 영화, 예능, 골프레슨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지연 없이 볼 수 있다.

박현진 KT 5G사업본부장(상무)은 “5G시대 모빌리티는 5G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KT는 모빌리티 환경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글로벌 진격’ 속도내는 게임사

필어비스 ‘검은사막’ 엑스박스 버전 북미·유럽 출시 게임빌, 모바일 신작 ‘탈리온’ 오세아니아 사전 예약

국내 중견 게임업체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PC온라인 게임에서 벗어나 모바일과 콘솔 등 플랫폼까지 다양화하는 모습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필어비스와 게임빌 등은 자사 게임을 해외지역에 선보이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선 필어비스는 인기 MMORPG 검은사막의 엑스박스 버전을 3월 4일 북미와 유럽에 출시한다. 이를 위해 필어비스는 게임 사전 주문을 시작한 상태다.

검은사막 엑스박스 버전은 4K 화질과 콘솔에 최적화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게임 플레이와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됐으며 그래픽과 사운드 등을 업그레이드해 리마스터 버전으로 적용했

다. 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오픈 월드 요소를 갖춰 콘솔 버전에 최적화된 게임으로 재탄생했다.

정경인 필어비스 대표는 “출시 전까지 게임의 퀄리티를 향상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빌은 신작 게임 ‘탈리온’을 오세아니아 지역에 출시하기에 앞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탈리온은 동남아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형성한 뒤 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게임빌은 탈리온을 이달 내 출시를 목표로 오세아니아 지역의 언어,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



게임빌 ‘탈리온’ 호주 사전예약 페이지.

사진제공 게임빌

히 게임빌은 이번 슬로건을 ‘당신이 기다렸던 MMORPG’로 내세우고 모바일 MMORPG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로컬 서버를 운영하며 최적의 접속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남아와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오픈 월드에서 펼쳐지는 ‘진영전’을 통해 또 한번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빌 관계자는 “올해 워블드로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별 순차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모바일 MMORPG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9개 지자체로 확대

부산·인천·대전·경기 4곳 추가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사

업 시행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 2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옥조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영등포역사 영업종료 앞두고 고민 깊은 롯데백

올해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의 영업 종료를 앞두고 AK플라자가 구로점 철수를 결정하자 롯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K플라자가 구로점의 대안으로 영등포역사 사업자에 도전할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까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등포점은 롯데가 보유한 점포 가운데 매출 상위 4번째에 해당하는 주요 점포다.

8월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만간 영등포역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월 말까지 모집 공고를 내고, 6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1989년 정부로부터 영등포역사 점용 계약을 맺고 1991년부터 영등포역사에서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7년 말 계약 만료로 영등포역사가 국가에 귀속됐지만 철도공단은 입점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롯데와 2년 임시 사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 만기로 롯데의 영등포점 영업은 종료되고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가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향후 최장 10년간 영등포역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역사 사용 연장에 쉽게 성공할 것으로

롯데 보유 점포 중 매출 4위 ‘알짜’ 신세계·현대백 동일 상권서 경쟁 계약 연장 가능성 무게 실렸는데 구로점 철수 ‘AK플라자’ 경쟁자로 국유재산 개정안 통과면 매출 매력

예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전대(재임대) 불가 조항과 최대 10년에 불과한 임대 기간 때문이다. 현재 법으로는 점포 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임대가 불가능해 제대로 된 백화점 사업이 어렵다. 또 투자비 회수 등을 고려할 때 기존 30년에 비해 임대기간도 짧아 백화점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근에 경쟁 백화점이 영업 중이라는 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역사 일지

- 1987년 → 정부와 30년간 영등포역사 점용 계약
- 1991년 → 영등포점 개점
- 2017년 9월 → 국토부, 영등포역사 2년 임시 사용 허가
- 2019년 2월 → 철도공단,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예정)
- 6월 → 신규 사업자 선정(예정)



도 롯데의 계약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은 영등포역사로부터 각각 직선거리 약 150m, 약 1.5km에 불과하다.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을 보유한데다 2021년 여의도점 개점을 앞둔 상태라 서울 서부 상권에 더 이상 출점할 이유가 없다. 신세계도 기존 영등포점을 운영중이어서 동일 상권에서 세 살 깎기 경쟁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변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제한적으로 재임대를 허용하고,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등포

역사는 유통 공룡이 군침을 흘릴 매력적인 매물로 떠오르게 된다.

게다가 AK플라자가 올해 8월 구로점 영업을 접기로 한 것도 변수다. 그동안 AK는 구로점과 영등포역사가 근접 상권이라는 이유로 신규 사업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로점을 폐점하기로 한 마당에 AK플라자도 영등포역사라는 알짜 매물의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AK플라자가 민자 역사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백화점이라는 점도 영등포역사 진출설에 힘을 실는다.

AK플라자는 현재 총 5개의 점포 중 수원점과 평택점 등 2곳이 민자 역사에 위치한다. 분당점은 분당선 서현역과 이어져 있어 역사 점포와 구조가 유사하다. 2003

년 수원역 개발로 들어선 ‘수원 더AK타운’은 역사 입점 효과를 톡톡히 누린 AK플라자의 주력 매장이다. 이래저래 롯데로서는 재계약 연장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까지 높아지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AK플라자가 구로본점을 접을 때 영등포역사 신규사업자 입찰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수원역과 평택역사 등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다 구로점 철수로 자본여력까지 생겨 영등포역사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AK플라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근린형 쇼핑몰인 AK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며 “(영등포역사 진출은) 현재로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박항서 효과·포스트 차이나...베트남에선

하이트진로 vs 롯데주류 ‘주점경쟁’ 후끈

국내 소주업계 라이벌의 베트남 주점 경쟁이 본격화됐다. 하이트진로가 진로포차를 오픈한데 이어 롯데주류도 ‘K-pub 처음처럼(이하 처음처럼 펍)’의 문을 열었다.

진로포차와 처음처럼 펍은 모두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해 인근 상권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다. 국내 주류 대표 기업들이 베트남을 주목하는 이유는 ‘박항서 효과’로 한식(K푸드)과 더불어 한국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베트남의 소주 소비 상승세도 주점 개설을 이끈 배경으로 분석된다.

롯데주류는 8일 베트남 하노이에 소주 ‘처음처럼’ 플래그십 스토어 ‘처음처럼 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펍은 하노이 ‘호안끼엠’에 위치했다. 이 지역은 베트남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로 지난 달 15일에 열린 스키점프 결승전 당시에도 수십만 인파가 거리왕원에 나섰던 곳이다. 처음처럼 펍에서는 ‘처음처럼’, ‘순하리’ 등 롯데주류의 소주와 떡볶이를 비롯한 한국식 안주를 판매한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펍이 향후 시음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주 저변 확대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소주 시장은 전체 동남아 소주 시장의 3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데다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처음처럼’ 역시 베트남



하이트진로 ‘진로포차’



롯데주류 ‘처음처럼 펍’

한국 음식·술에 현지 관심 매우 커져 ‘진로포차’ 이어 ‘처음처럼 펍’ 문열어 “소주 저변 확대 마케팅에 적극 나서”

술의 베트남 수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베트남 소주 수출량은 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박항서 효과로 베트남에서 한식과 한국 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주류업계가 소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함께 소개하는 주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소주 저변을 확대하는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주류보다 앞서 진로포차를 오픈한 하이트진로는 이미 주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노이 거리 박 거리 대로변에 문을 연 한국식 실내포차인 ‘진로포차’는 1호점 인기에 힘입어 올해 2호점 오픈이 예정됐다. 하이트진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입해 2020년까지 진로포차를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진로포차는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직접 찾은 곳으로도 현지에서 유명해졌다. 박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메인스폰서인 하이트진로와의 인연으로 오픈 당시 진로포차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감독이 즐기는 술과 안주라는 입소문이 SNS를 통해 현지 젊은 층에 확산되면서 소주는 물론 삼겹살, 불낙전골 등 한국식 안주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진로포차를 운영하면서 참이슬의 베트남 수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베트남 소주 수출량은 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박항서 효과로 베트남에서 한식과 한국 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주류업계가 소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함께 소개하는 주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소주 저변을 확대하는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제2 제조업 메카” 홈쇼핑업계 진출 활발

홈쇼핑업체들이 베트남과 점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연평균 6%대 성장률을 보이는 데다 중국에 이어 ‘제2의 제조업 메카’로 꼽히는 만큼 베트남 제조업체를 활용하고, 판로 개척을 꾀하며,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GS홈쇼핑은 베트남 현지 e커머스 스타트업인 ‘르플레어(Leflair)’에 300만 달러(한화 약 34억 원)를 투자했다고 8일 밝혔다. 르플레어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GS홈쇼핑은 르플레어가 한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진출한 온라인 쇼핑몰인 VGS샵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도 꾀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국내외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GS홈쇼핑은 이번 투자를 통해 베트남 e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GS홈쇼핑은 3월부터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인 ‘500스타트업’과 함께 베트남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더 사울라 액셀러레이터(The Saola Accelerator)’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60%가 35세 이하일 정도로 젊은 층 비중이 높다”며 “이들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협력사 제품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 손잡았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패션 협력사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CJ오쇼핑이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 미팅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CJ오쇼핑

GS홈쇼핑, 현지 스타트업 투자 신성장동력 모색
CJ오쇼핑·현대홈쇼핑 등 협력사 판로 개척 나서
TV방송 종료한 롯데는 온라인몰 사업에 ‘온힘’

제조사를 찾아 연계해주는 ‘우수 제조사 매칭 페어’를 열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베트남은 인건비가 낮아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제조업에 매력적인 곳”이라며 “협력사들이 베트남 제조사를 활용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도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제품 해외 시장 현지화 조사단’ 프로그램을 열고 협력사의 베트남 진출을 돕는다. 현대홈쇼핑은 올해도 협력사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베트남 현지 진출 6년 만인 지난해 12월 베트남 TV홈쇼핑 방송을 종료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VN’ 사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베트남 유통시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TV홈쇼핑 방송 대신 온라인몰 사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

내외외환에 시달리는 코스피

157개사 3개월 전보다 17% 감소

어닝쇼크 예상돼 비관론 확산

美中 무역분쟁·브렉시트·애플 쇼크

외부 변수에 추가 회복 어려울 듯

상장사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규모 어닝쇼크가 예상되면서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

시가총액 상위기업 4분기 예상 영업익

(단위 : 억 원)

종목명	3개월 전 추정치	8일 기준 추정치	변동률(%)
SK하이닉스	60,281	53,403	-11.4
셀트리온	1,753	955	-45.5
현대차	11,544	8,736	-24.3
LG화학	5,675	4,030	-29.0
NAVER	2,824	2,409	-14.7
POSCO	13,641	13,185	-3.3
한국전력	-3,879	-7,168	적자확대
SK텔레콤	3,255	3,190	-2.0

※출처 : 에프앤가이드

장사 157개사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추정치)는 3개월 전보다 7조5499억 원(-17.2%)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OCI

의 예상 영업이익 규모가 -83% 줄었고, 하나투어(-70.7%), 화승엔터프라이즈(-56.9%), LG하우시스(-52.3%) 등의 감소폭이 컸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지만 업계는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23% 하회하면서 실적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는 컨센서스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하향 조정 움직임에 나섰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흐름을 보이

면 컨센서스도 추가 조정될 전망"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개월 전 대비 모두 낮아졌다. 이번달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추정치는 최근 -11.4% 조정됐다. 셀트리온(-45.5%), 현대차(-24.3%), LG화학(-29%), 네이버(-14.7%), 포스코(-3.3%) 등도 감소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어닝시즌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컨센서스 하향"이라며 "코스피 이익전망 하향은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실적 발표 이후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분쟁, 브렉시트, 기준금리 인상 등 굵직한 외부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감익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 추가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글로벌 실험동물 시장 선도할 것”

CEO 인터뷰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대표

오리엔트바이오가 무차입 경영에 나선다. 부채 상환에는 최근 진행 중인 300억 원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200억 원이 투입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시대에 필요한 연구개발용 영장류 사업 확대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 운영자금(영장류 사업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환 후 단순 추정 부채비율은 연결 기준 58%, 별도기준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국내 유일의 국제 유전자 표준(IGS-International Genetic Standard)의 고품질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실험동물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전 약효, 독성, 부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비임상 시험에 사용된다.

오리엔트바이오의 현재 실험동물 사육 설비로 국내 가평센터·충북센터·전북센터 3곳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시설은 캄보디아 영장류 생산 및 CRO 센터와 2017년 8월에 인수한 미국 영장류



**유상증자로 부채 200억 상환
연구개발용 영장류 사업 확대
당뇨·알츠하이머 모델 등 개발
올해 美 수출 100억 넘어설 것**

센터를 가지고 있다. 전체 생산능력(CAPA)은 연간 최대 일반 실험용 쥐(마우스) 500만 마리, 랫(Rat) 150만

마리, 누드마우스 25만 마리, 비글 4000마리, 원숭이 6000마리 수준이다.

장재진 대표는 “실험용 영장류 미국 수출이 증가해, 캄보디아 생산 규모를 기존 6000수에서 1만 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미국 수출액은 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비임상시험 대행 서비스 센터 중 하나인 캄보디아 센터는 자연적 계대 방법으로 제2형 당뇨병, 비만 모델, 알츠하이머 모델 등 자연 발생 영장류 모델을 개발했고, 향후 대량생산과 특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또 화학적 처리(Chemical Treatment)를 통한 1형 및 2형 당뇨병, 비만, 파킨슨 질병 및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 등이 있으며, 수술적 처리(Surgical Treatment) 방법으로도 1형 당뇨병, 골관절염 및 폐경 영장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크리스퍼 캐스나인(CRISPR/Cas9)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기관인 툴젠과 지난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새로운 유전자 조작 기술로 연구개발용 영장류 질환 모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첨단바이오 기술로 개발된 질환모델 동물을 기반으로 특화된 비임상 CRO사업에도 독보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피델릭스, 美 스마트폰 업체에 ‘노어플래시 메모리’ 공급

분기 시황따라 공급 달라져 올해 250억 규모 수출 기대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 피델릭스가 노어플래시 메모리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대규모 미국향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피델릭스 관계자는 8일 “올해 미국 대형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공급할 예정인 노어플래시 메모리 출하 규모는 약 250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1분기의 경우 4분의 1가량의 매출액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2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시황에 따라 메모리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매

피델릭스 주가 추이

(단위 : 원)



출 규모를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델릭스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어플래시 메모리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블루투스 이어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스마트기어 제작에 사용된다. 기존의 스마트폰과 저사양 피쳐폰을 포함해 적용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작년 중국과 양

대 핵심 수출 지역으로 부상한 만큼 노어플래시 메모리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작년 미국 및 유럽시장 수출 규모는 200억 원을 웃돌아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성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올해도 성장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노어플래시 제품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3분기부터 48나노미터(nm)로 생산되는 128Mb 노어플래시 메모리 샘플 생산을 마치는 대로 제품 양산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북미펀드 자금, 신흥국펀드로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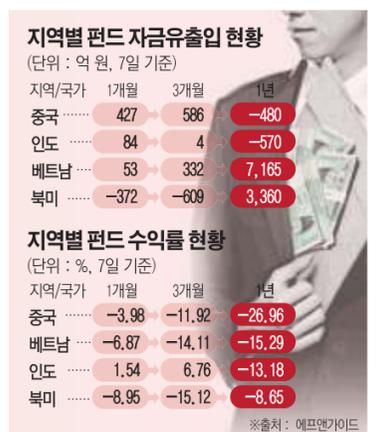
美 정부 섰다운·금리인상 정책 등 불확실성에 1개월새 372억 유출 투자환경 우호적 변화 기대감 인도 84억·베트남 53억 원 유입

지난해 선전했던 북미펀드에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펀드에 유입되고 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북미펀드에서 차익 실현 자금이 유출되는 사이 신흥국펀드는 지난해보다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만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북미펀드에서는 372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최근 1년간 336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중국펀드에서는 427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지난 1년간 480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최근 한 달 새 자금 방향이 전환됐다. 인도펀드와 베트남펀드에도 최근 한 달간 각각 84억 원, 53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수익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북미펀드는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8.95%로 일본펀드(-9.70%)에 이어 20개 지역펀드 중 가장 저조했다. 같은 기간 중국(-3.98%)과 베트남(-6.87%), 인도(1.54%) 등 신흥국펀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북미펀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한때 1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신흥국펀드 수익률이 대외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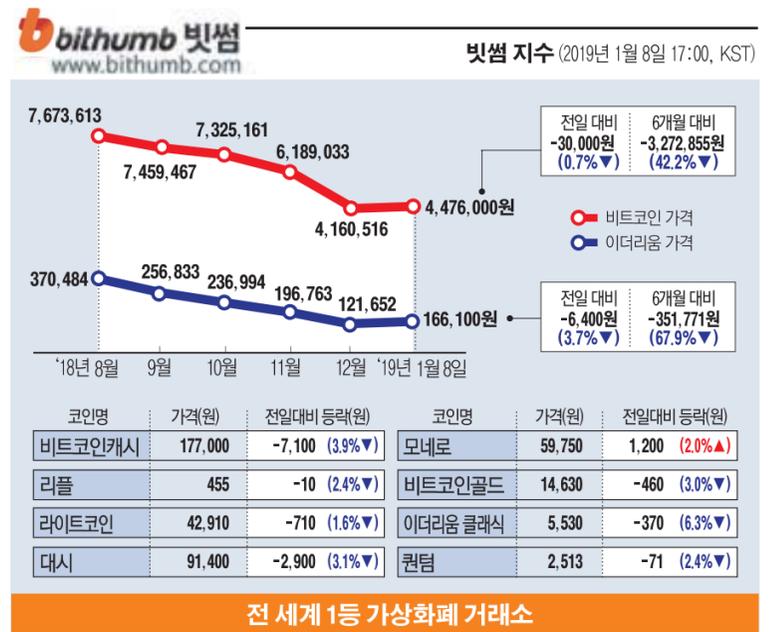
여파에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5% 안팎의 꾸준한 수익률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은 10월’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북미펀드의 자금 유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광영 신흥증권 연구원은 “북미펀드에 지난해 11월까지 자금 유입이 됐지만, 미국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자 차익 실현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북미펀드는 자금 유출입 측면에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펀드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수소비 성장국인 베트남과 인도는 올해 투자 환경이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증시) 하락률이 높았던 중국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률 눈높이는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속도내는 신안산선... '안·시·광' 수혜 "글썸"

(안산·시흥·광명)

이르면 올해 착공...안산은 도시기능 미흡 파급효과 기대 어려워
노후화된 반월산단 가동률 70% 그쳐...도로 좁고 편의시설 부족

경기 서남부의 핵심 교통시설 구축 사업인 신안산선이 이르면 올해 착공에 돌입한다. 2002년 11월 정부의 첫 사업 추진 발표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호재가 분과도에 오르면서, 안산·시흥·광명 등 수혜 지역에선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감과 함께 도시기능 미흡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신안산선의 출발점인 안산시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 열렸다.

그동안 느린 속도에 지역 내 불만이 높았던 신안산선은 향후 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착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3조4000억여 원 규모로, 해당 노선이 연결되면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여의도까지는 현재 100분에서 25분(급행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서

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의 교통 편익이 대폭 향상된다.

이 같은 대형 교통 호재는 인구증가, 기업유치, 일자리 증대 등 도시의 핵심 성장동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성장동력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는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여건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는 자족여건을 높여줄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대의 약 202만㎡(61만 평) 부지에 약 1조7494억 원을 투입해 첨단연구단지, 일반산업단지



신안산선이 이르면 올해 착공될 예정이지만 안산시는 도시기능 활성화 시설이 부족해 신안산선의 파급 효과를 누리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안산시 전경.

개 배후 주거단지와 유통단지 등을 조성한다.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 부문에서도 차이가 크다. 광명시에는 광명역세권을 중심으로 연평균 500만~600만 명이 방문하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가 밀집해 있다. 시흥시에서 지난해 4월 문을 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은 오픈 후 한 달간 누적 방문객 수만 15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20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7년 프리미엄 아울렛 순위 10위에 올랐다.

문제는 신안산선의 출발점에 놓인 안산시다. 광명 및 시흥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기에 이번 신안산선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지탱해 줄 도시기능 활성화 시설 확보는 오히려 미흡하다.

예를 들어 안산시 경제를 이끌던 반월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이곳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70.4% 수준으로,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공장 가동률인 80.8%에도 못 미친다.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5) 씨는 "산업단지가 조성 40년 차를 넘기면서 좁은 도로 등 노후화가 심하게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노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진 계획



산업단지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과 기업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내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를 조성한다며 국책사업 예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 한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도시기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신안산선 개통과 89·90블록 첨단산업지구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함께 경기권 최대 단지인 그랑시티아이 입주인 2만여 명이 2020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지만 지역 내 쇼핑,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반포3주구, 결국 시공사 선정 취소

조합 총회 열여 의결...현대산업개발 "불복...가처분 낼 것"

반포3주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새 시공사를 찾아 나선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7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1622명의 조합원 가운데 857명(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참석했고 745명이 시공사 선정 취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3주구조합은 시공사 공개경쟁입찰에서 두 번의 유찰 뒤 지난해 7월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 전부터 반대 조합원들과 갈등이 벌어졌고 특화설계안과 공사 범위 등 세부 계약 조건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선정 취소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이번 총회서 조합은 수의계약을 통해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합은 최근 주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시공사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가 참여 의향을 제출한 상태다. 조합은 9일 대림산업, 롯데건설, 10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순으로 시공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은 이달 20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을 심사하는 설계심의회 위원 2배로 늘어난다. 정원 수가 적어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도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턱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심의회 위원 부족해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원은 2017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어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또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법 KISO 클린관리센터, 특허 출원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방법과 축적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특허 출원한 '부동산 매물 정보 관리 방법'은 센터 설립 당시부터 축적된 검증 노하우와

데이터를 활용해 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가져올 솔루션이다.

특허 출원된 서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관리 방법은 △이용자 단말기로부터 허위매물 신고를 수신하는 단계 △신고에 대한 검증 △검증 결과에 기초해 매물 중개인에게 대한 정보를 경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시스템을 통한 상호 검증으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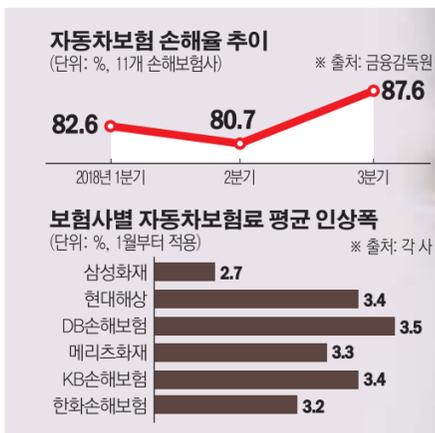
손해율 84%·실손은 적자... 보험사 "3%대 올려야"

새해 車 보험료 줄인상

세초부터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 금융당국 눈치와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덕에 인상 폭은 제한됐지만, 소비자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인상하되 소비자 부담 최소화" 실손은 삼성화재 '나홀로 인하' 손해율 123% 육박 손보사 난감

◇이달 중순부터 3%대 줄인상... 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 = 8일 관련 업계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3%대로 올릴 예정이다. 우선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3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3% 인상할 예정이다. 4월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인하하고 나서 약 9개월 만이다. 법인 차량 등 업무



용 자동차 보험료는 1.7%, 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0.8% 인상된다. 평균 인상 폭은 2.7%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른 손보사보다 손해율이 양호하고, 보험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2위 현대해상과 3위 DB손해보험 역시 1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3.4%, 3.5% 올린다. 6위인 메리츠화재도 같은

날 3.3% 올릴 예정이다. 4위 KB손해보험은 19일부터 3.4% 인상한다. 이번 인상에는 올해 급증한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 보험료)과 현재 진행 중인 정비요금 재계약이 일부 반영됐다. 자동차보험의 1~3분기 누적 손해율은 83.7%로 '적정 손해율'로 여겨지는 78~80% 선을 넘었다. A 손보사 관계자는 "정비요금 재계약이 완료되면 3~4%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

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실손보험료 나 홀로 인하...타사는 눈치만 =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거둬들이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9%까지 치솟았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손해보험은 5.9%,

생명보험은 8.7%의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큰 형님'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표준화 실손보험 △착한 실손보험(신실손보험) 등 3가지로 나뉘는데,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이 가장 많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이 타사보다 낮은 데다 문 케어 효과를 반영해 인하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이 6.15%가량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금 지급감소분(6.15%)에 비급여 특약 제외 효과를 더한 수치다. B 손보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나 홀로 보험료 인하를 단행해서 타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올해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등 주요 필수 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시행된다. 보험사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보험들의 보험료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가입할 때 할인 특약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에 따라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거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할인 특약을 운영한다. 주요 할인 특약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족 우대 특약,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 효도 특약 등 가족 관련 사항을 주목할 만하다.

보험료 아끼는 소소한 '꿀팁'

저소득층 가정 3~8% 할인... 다자녀 어린이보험 5% 우대
부부특약 최대 10% 절감... 다이렉트·모바일 비교도 방법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족 우대 특약은 각각 최대 3~8%와 2~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이다. 다자녀 가정은 어린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2명 이상이면 최대 5%까지 할인 가능하다. 효도 특약은 본인이 부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간편심사보험과 간병보험 등에서 최대 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 이외에 일반 가입자는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과 '부부 가입 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된 경우 1~14%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또 부부 가입 할인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사 주요 할인 특약

특약 내용	할인율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 특약	2~8%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	0.5~5%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 할인 특약	1~2%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	1~14%
부부가입 할인 특약	1~10%

※ 출처: 금융감독원

특약은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혜택 범위도 넓다. 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황이라면 '고액계약'과 '자동이체' 할인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고액계약할인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에서 보험가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료를 1~20%를 할인해준다. 보험가입 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고액 종신보험에 가

입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자동이체신청서 제출 이후 할인 신청을 하면 할인 보험료로 납부 가능하다. 다만, 고액계약과 자동이체 할인 특약은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조금 싸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각 사마다 보장이 같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은 생명·손해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서비스를 통해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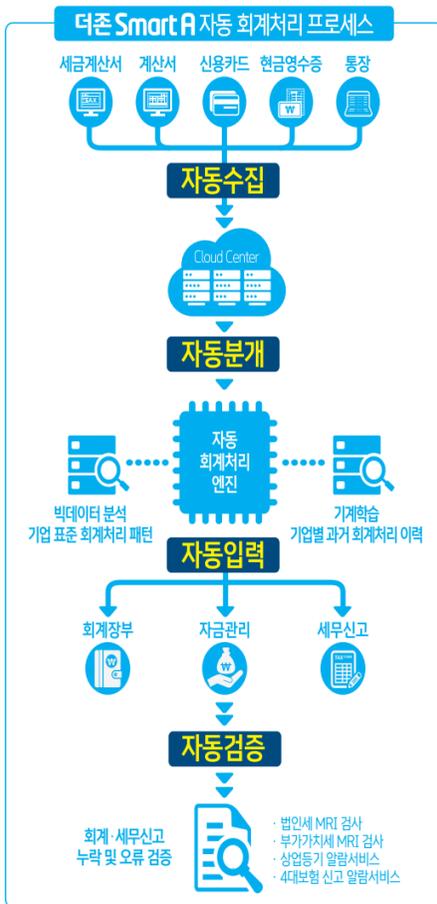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사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이더리움, 기술 업그레이드 때마다 '하드포크'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콘스탄티노플 '공짜 코인' 가능성 낮다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하드포크가 되면 새로운 코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드포크가 뭐길래 = 이더리움이 시총 2위를 차지하는 만큼 하드포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뤄질 때마다 하드포크라는 형식이 도입된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하드포크 이후 새로운 코인을 받게 될 것이란 얘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하드포크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코인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가상화폐가 컴퓨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사실 치명적인 버그나 오류를 잡기 위해서 간단한 업데이트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포크'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포크(Fork)란 포크로 가상화폐의 일정 시점을 꼭 찍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분리한다는 것을 비유해 나온 용어다. 비교적 변화가 없을 때는 '소프트포크(Soft fork)'라고 하며, 변화내용이 많을 때는 '하드포크(hard fork)'라고 한다.

이달 14~16일 이뤄지는 이더리움하드포크는 기술적으로 변화가 많은 만큼 하드포크라고 명명했다.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시스템과 구형 시스템이 나뉘게 되는데 두 시스템이 모두 존재할 때 2가지 코인이 생긴다.

예컨대 2017년 8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가 나뉠 때 업그레이드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려 진영이 분리됐다. 결과적으로 코인 보유자들은 새로운 코인인 비트코인캐시를 담으로 받게 된 것이다.

◇이더리움 새 코인 받을 가능성 낮다 = 콘스탄티노플하드포크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가 나뉠 때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클래식(ETC)으로 분리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더리움, 14~16일 업그레이드 “새 코인 받는다” 얘기 퍼지지만 기반 댐·토큰 신형 플랫폼만 지원해 클래식 때처럼 이원화 확률 없어 하드포크 관련 사기 행각 주의해야

구식 시스템을 이어갈 지지자(채굴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더리움이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 운영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댐)들이 결국 성능이 향상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댐은 금융플랫폼메이커다오(MakerDAO), 카이베네트워크(Kyber Network), 예측 베팅 플랫폼 어거(Augur), 수집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등 다양하다. 게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표준 토큰(ERC20)이 수만 개로 알려져 있다.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로 신형과 구형 시스템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기반의 댐이나

토큰들은 결국 신형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형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시 말해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로 새로 생기는 '공짜 코인'은 없을 예정이며, 있다고 해도 가치 없는 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관련 기술 개발자는 “이더리움 클래식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하드포크로 둘로 쪼개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드포크 준비사항은 =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콘스탄티노플이 적용된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 것과 달리, 일반 투자자나 보유자라면 이번 하드포크에 특별히 준비할 내용은 없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전후 이더리움은 똑같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데이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6일 전후 일주일 동안에 대량 전송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된 후에 전송하라는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드포크가 예정된 만큼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하드포크와 관련된 스캠(사기) 행각이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시장 이모저모

미국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물 투자자 중 하나인 윙클보스 형제가 시장의 존망에 대한 논란 속에서 여전히 평가절하됐다고 주장해 시선을 끌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준버(팔지 않고 버티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윙클보스 “비트코인, 여전히 금보다 낮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공동 설립자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지난해 70% 이상 떨어졌지만, 여전히 금보다 더 낮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억만장자로 유명한 캐머런과 타이러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는 대표적 가상화폐 강세론자다. 이들은 2008년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거액을 손에 쥔 인물들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윙클보스 형제는 미국 인기 토론 웹사이트 레드에서 비트코인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투자자 5명 중 4명 ‘장기 투자’

비트코인 투자자 5명 중 4명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단기 대비 장기 투자의 비율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 경제 매체는 투자분석사 데일리FX 데이터를 인용해 “상처투성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백기를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데일리FX 애널리스트 판시우는 “장기 투자자 비율은 지난주보다 6.2% 증가했고, 단기 투자자는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마켓워치는 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알트코인(altcoin)의 선전’을 꼽았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다.

美 오하이오주, 기업세금 납부 플랫폼 허용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기업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오버스톡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올 2월에 상업 활동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오버스톡은 2014년 대형 유통업체 중 최초로 가상화폐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하고자 자회사 메디치벤처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앞서 오하이오주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플랫폼을 허용했다.

김우람 기자 hura@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익선동이 살아야 호텔도... 지역과 상생할 것”

황보석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호텔 총지배인

美서 시작 호텔리어 15년차...인턴서 총지배인 오른 필드맨 재개발 논의 때 ‘보전’ 동참 “익선동 알리는 게 곧 호텔 홍보”

“익선동이라는 좋은 지역에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옛날 거리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리도 있고요. 이 때력을 알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호텔 홍보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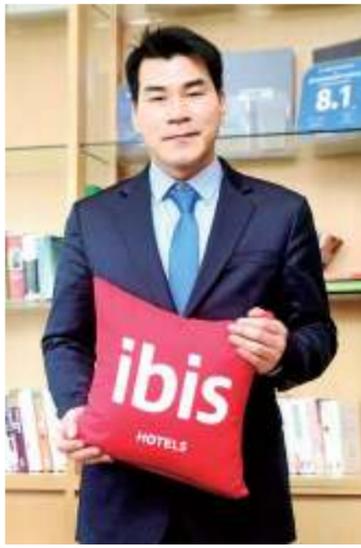
종로3가역 4번 출구. 최근 명소로 떠오른 익선동 거리를 통하는 초입구에 접근하면 커다란 회색 건물이 눈에 띈다. 익선동 거리를 지켜보는 듯한 모양새로 우뚝 서 있는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호텔이다. 마치 익선동 거리가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호텔을 관통하는 같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황보석(41) 총지배인은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호텔을 ‘익선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7일 선임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오피레이션 총괄로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호텔에서 근무한 그의 인사동 복귀다.

15년차 ‘호텔리어’인 그는 2003년 미국 노스 시애틀에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시작했다. 엠베서더 호텔 그룹에서는 인턴부터 시작해 총지배인까지 오른 ‘필드맨’이다.

황보 총지배인은 8일 종로구 익선동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호텔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당시 호텔 앞에는 연탄집과 전집들이 있었다”며 “익선동이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때라 ‘보전’과 ‘재개발’로 입장이 나뉘었다. 당시 총지배



인이 ‘보전’이라는 큰 결심을 내렸고, 이후 젊은 친구들이 모여 익선동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 총지배인이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호텔로 자리매김한다고 강조하는 이

유도 이 때문이다. “이왕 호텔 마케팅 비용을 쓴다면, ‘지역 상생’으로 가야 해요. 명동이 우리나라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불리는 건 외국인 관광객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랜드마크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호텔 홍보가 아닌 지역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익선동이 유명하지 않는데 아무리 호텔을 내세워 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명동 상권이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그레도 명동’이잖아요.”

이를 위해 아코르 그룹과 엠베서더 호텔 그룹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비스는 세계적인 호텔그룹인 아코르와 엠베서더 호텔그룹의 합작이다. 황보 총지배인은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코르, 엠베서더 홈페이지나 예약 채널에 호텔과 지역 사진을 함께 노출해서 지역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라며 “객실 사진을 100번 보여주는 것보다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코오롱호텔 총지배인 허진영

그룹 내 첫 여성 총지배인 선임



코오롱그룹의 호텔·리조트가 허진영(47·왼쪽) 코오롱호텔 총지배인과 김영태(50)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총지배인을 새롭게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호텔업 경력 22년차 베테랑인 허진영 코오롱호텔 총지배인은 코오롱그룹 호텔·리조트 최초의 여성 총지배인이다. 1993년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식음료 판매 사원으로 호텔업계에 입문한 뒤 20여년간 호텔 내 핵심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과 호텔 운영 노하우를 쌓았다. 2006년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객실팀 부지배인으로 입사, 총괄 운영 팀장을 지내고 지난해 코오롱호텔 식음료팀 지배인을 거쳐 올해 총지배인으로 선임됐다.

김영태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총지배인은 1992년 코오롱호텔 식음료팀에 입사해 코오롱그룹의 호텔·리조트 사업에 28년째 몸담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한화그룹, 이웃돕기 성금 30억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30억 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도탈,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등 한화 계열사들은 ‘함께 멀리’의 그룹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오롱그룹, 희망나눔 성금 7억



코오롱그룹은 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눔 성금’으로 7억 원을 전달했다. 코오롱은 2008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일 부사장(코오롱 CSR사무국장·사진 왼쪽),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코오롱은 성금 가운데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하고 있는 ‘도시놀이터 개선 사업’에 지정 기탁했다. 이 사업은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해당 지역의 아동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베이비박스 10년째 운영 1519명 아기 보호한 이종락 목사

LG복지재단 ‘의인상’...화재 현장서 노인 생명 구한 장원갑 씨도

LG복지재단이 8일 베이비박스를 10년째 운영해 버려지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 온 이종락 목사(65·왼쪽 사진)와 화재 현장에서 방법장을 뜯고 이웃을 구한 장원갑(53·오른쪽)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 LG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정의의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들에게 수여하던 LG 의인상의 시상 범위를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한 선행과 봉사

귀감이 된 시민들로 확대키로 했다.

그 첫 번째로 아기가 유기돼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상자 모양의 생명 보호 장치인 베이비박스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 이 목사는 현재까지 1519명의 아기를 보호했다.

또 다른 의인 수상자인 장 씨는 1일 오후 9시경 산책을 하다 주변에서 불길과 연기



가 치솟는 광경을 목격했다. 현장에 달려간 장 씨는 화재가 난 집 안에 노인이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방법장을 뜯은 후 그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가맹점과 본사 공감·소통의 장” 제너시스BBQ 동행위 2기 출범

제너시스BBQ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킨대학에서 동행위원회 2기 출범식(사진)을 열고 가맹점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제너시스BBQ의 동행위원회는 정부의 가맹사업 분야 거대 공정화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2017년 7월 출범한 본사와 패밀리(가맹점) 간 운영협의체다.

이날 2기 출범식에는 제너시스BBQ 임직원과 2기 동행위원 41명이 참석해 현장



에서 투표로 남승우 강북스타점 사장을 가맹점사업자대표로 선출했고, 본사대표는 백영호 BBQ대표가 맡았다.

백 대표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지짐 아래 공감과 소통의 장을 이어

가고자 1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기 동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방탄소년단 인형 나온다... ‘바비인형’ 만든 마텔과 계약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인형이 제작된다. 제작사는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다.

AP통신은 마텔이 K-팝 밴드 방탄소년단의 공식 인형 컬렉션을 제작,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텔은 이를 위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전 세계 라이선싱 계

약을 체결했다. 율여름 출시될 인형은 뮤직비디오 ‘아이돌’에 나온 모습을 재현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텔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마텔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이 그룹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미국 빌보드



톱200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한 첫 한국 밴드로 기록됐다.

니경연 기자 contest@

인사

-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예산실장 안일환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문성유
-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황윤정
- ◆대한석유협회 <승진> △전무(대외협력본부장) 주정빈
- ◆KDB생명 <상무(보) 승진> △전략기획

- 부문장 김영서 △재무부문장 한준호 △경영지원부문장 우기수 △전략개발부문장 박성준 △GA채널부문장 손명관 △자산운용부문장 이상훈 △IT부문장 이은호 △고객지원부문장 이호진 △준법감시인 오완교
- ◆MBC플러스 △광고사업본부 광고센터 센터장 김정현 △ “ 광고2팀 팀장 이홍섭 △ “ 미디어사업센터 브랜드사업팀 팀장 김종윤 △ “ 광고센터 IMC사업팀 팀장 장세종

부음

- ▲유연형 씨 별세, 손상호(한국금융연구원 원장)·상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씨 모친상, 정흥연·윤선희 씨 시모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10일, 02-3010-2000
- ▲노동선 씨 별세, 노철규(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진희·은희(도당고등학교 교사) 씨 부친상, 최영권(하나은행 증권

운용부 팀장)·곽상원(CJ ENM 부장) 씨 장인상 = 8일, 이대 목동병원 특 3호, 발인 10일 오전 8시, 02-2650-5121

▲송정식 씨 별세, 송병원(가천길재단 비서실장·경인일보 감사)·병대 씨 부친상, 이상재(세명ENC이사)·문일현(건국공영 대표이사)·유달영(라베르 여성병원장) 씨 장인상 = 8일, 서울시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58-5940

게시판

김옥진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원광대 생명환경학부 김옥진 교수가 세계 주요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서 수여하는 2019 엘버트 넬슨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장을 맡아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동물매개 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에몬스, 12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에몬스는 7일 인천 본사에서 ‘2019 에몬스 장학생(12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12회를 맞은 에몬스 장학회는 동국대 조이경 학생 등 총 14명의 장학생에게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카콜라'의 구독층과 '알릴레오'의 구독층은 그 성향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즉, 유 이사장의 유튜브는 이념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팬덤에 기반을 두고 있고, 홍 전 대표의 유튜브는 보수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념적 진영 논리에 충실한 방송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제에 오르더니, 첫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50만 명을 돌파해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를 제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유튜브에서의 좌우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좌우의 대결이라고 할 때는, 이념 진영 간의 대결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에 동의하기 힘들다. 홍카콜라의 구독층과 알릴레오의 구독층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카콜라의 구독층은 대부분 보수다. 하지만 이들 구독층을 홍 전 대표의 '팬'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일반 보수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보수층은 현재의 방송 환경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다. 보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도권 방송이 실제로 정권 친화적인 프로그램만 내보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는 얘기만 내보내서인지는 몰라도, 보수층 대부분은 제도권 방송을 불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들

은 유튜브로 몰려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들의 이념적 갈등을 유튜브가 해소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정권 시절, 진보들이 '나꼼수'와 같은 팟캐스트에 열광했던 현상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반면, '알릴레오'의 구독층은 유시민 이사장의 '팬'과 친노 혹은 친문 성향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래 친문이라기보다는 친 노였는데, 여기서 친문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최근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때문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jtbc TV 토론에서 "경제 위기론이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이득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막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옛날 정책으로 돌리려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 놀랍고, 그래서 유 이사장이 현 정권의 수호자가 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잘못된 뉴스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방송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서거한 분이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닐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 이사장이 말하는 가짜 뉴스란 현 정권 관련 가짜 뉴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유 이사장이 정권의 수호자로서 유튜브에서도 '정권 방탄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방탄 방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친문들은 '알릴레오'로 몰려갈 것이고, 더 나아가 유 이사장은 친문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알릴레오' 구독층의 주류가 유 이사장의 팬들과 친노, 친문으로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의 입장에서 현재의 방송 환경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를 찾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알릴레오'를 찾는 이들이 진보층 일반이라기보다는 유 이사장의 팬들과 친노 혹은 친문

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홍카콜라'의 구독층과 '알릴레오'의 구독층은 그 성향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즉, 유 이사장의 유튜브는 이념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팬덤에 기반을 두고 있고, 홍 전 대표의 유튜브는 보수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념적 진영 논리에 충실한 방송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또 다른 전략적 차원의 상이점을 보여준다. 유시민 이사장은 팬덤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점차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팬을 만들어 가려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전략 수단으로서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의 전략 수단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두 유튜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승패를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진실을 말하느냐 하는 점이다.

정책발언대



김삼하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이투데이, 말투데이

최근 겨울 날씨는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삼한사미(三寒四微)'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들은 추위와 미세먼지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한다며 탈원전만 부르짖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과정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중 43%를 차지한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 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했다.

정부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2017년 12월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확정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반영한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7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1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도 발표했다.

대책만 놓고 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획기적으로 될 것처럼 그럴싸하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대책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잠깐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효과도 미미하고, 근본적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 제도와 전력시장 경쟁제전 시스템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말하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환경 보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피해 예방, 전력 계통 운영상 중대한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화력발전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보상규범을 만든 사례가 있다.

보상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독일 연방법재판소 재판에서 보듯이 정부가 발전소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면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발전회사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주도해 수립하다 보니 입법 절차 없이 신규 발전사업자의 사업권 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라 하더라도 입법 절차를 통해 건설 또는 가동 중단이 필요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 시몬느 드 보바르 명언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존주의 입장을 취한 현대 프랑스의 작가, 철학자, 여성해방운동가. 저서 '제2의 성'을 통해 한 말로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을 한 그는 "내 가장 소중한 작품은 내 인생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죽을 때까지 급진적인 활동가로 살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8-1986.

☆ 고사성어 / 홍일점(紅一點) 하나의 붉은 점. 많은 남자들 틈에 낀 여자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운데서 뛰어난 하나를 가리킨다. 중국 송(宋)나라 왕안석(王安石)의 석류꽃 시에서 유래했다. "온통 푸름 속에 빨간 점 하나(萬綠叢中紅一點) 이런 붉 풍경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動人春色不須多]

☆ 시사상식 / 회복탄력성(resilience)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으로 뛰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긍정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탄력성은 놀라게 향상된다.

☆ 속담 / 소경 셋이 모이면 못 보는 편지를 뜯어본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 유머 / 인플레이션 정의 아내가 회계사 남편에게 인플레이션이 뭐냐고 물었다.

남편의 정의. "예전 당시 몸매는 36-24-36이었는데 지금은 48-40-48이 되었지? 쉽게 설명하면 당신의 모든 것이 전보다 커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옛날보다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새 하 금융부/@shys0536@

KB국민은행 파업을 생각한다

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했다. 실제 2008~2017년 동안 이를 넘는 적은 없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하향 평준화'를 외치는 거다. 예컨대 자기 월급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낮추려고 한다. "나는 일년에 3000만 원을 받는데, 너는 감히

9000만 원을 받느냐"는 식이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생각을 접고, 다 같이 못살자는 주장이다. 같은 노동자끼리 서로를 '귀족 노조'라고 공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격 타격을 잘못 잡은 셈이다.

KB금융 주식의 68.7%가 외국인 소유다. 3월 지난해 순이익의 30~35%를 주주

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보금으로 쌓아 둔다. 회사가 3조 원가량 이익이 나도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돈 없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노조는 파업 명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은 '여성', '청년' 은행원을 내세웠다. 성과급의 경우 시간 외 수당을 합쳐 '300%'에 어느 정도 노사 간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이 결렬된 이유라고 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8일 "사측에서 성과급과 임금 수정안을 제안했고, 노조는 수용했다"며 "현재 핵심 쟁점은 신입 행원에 대한 기본급 상승 제한(페이밴드 폐지)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L0)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명분'이라고만 생각되진 않는다.

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 9100만 원, 월급쟁이 중에서도 고소득자들이 '제 배 불리기'에 나섰다 는 시선이다.

은행이라는 특성도 한몫한다. 공공성을 지닌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상은 어떨까. 우선 노사 간 쟁점인 '성과급'을 살펴보자. 국민은행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1위 은행'을 차지했다. 국민은행 모회사인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애초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목표에 미달했다며 월 기본급의 70%만 주겠다고 했다.

한 국민은행 직원은 "ROE 10%는 사

한국 편의점 30년 '위기과 기회'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편의점은 수년간 나홀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며 내수 부진에 시달리던 국내 유통 시장에서 다른 업체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런데 상황은 지난해부터 급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매 유통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1분기 경기전망지수에서 편의점 전망은 업종 중 최악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전직하하게 됐을까.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동네 구멍가게들만 있던 시절에 깨끗한 인테리어, 젊고 친절한 직원, 24시간 영업 등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당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던 동네 구멍가게와 달리 편의점은 포스(POS) 시스템 도입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투명한 상거래를 선도하는 순기능까지 가능해지면서 정부도 환영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입선출 및 재고관리, 위생 시스템 등 선진유통기법이 적용돼 만족도가 높았다.

1989년 5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등장한 국내 최초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동네 구멍가게들만 있던 시절에 깨끗한 인테리어, 젊고 친절한 직원, 24시간 영업 등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당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던 동네 구멍가게와 달리 편의점은 포스(POS) 시스템 도입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투명한 상거래를 선도하는 순기능까지 가능해지면서 정부도 환영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입선출 및 재고관리, 위생 시스템 등 선진유통기법이 적용돼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장점들과 더불어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등과 달리 편의점은 본사와의 가맹 방식에 따라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30년 만에 4만 개 시대가 열렸고 2017년 매출은 22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은 그만큼 빨리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편의점의 폭발적인 성장세 뒤로 출혈경쟁과 시장 포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가맹점주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국내 편의점의 밀집도는 인구 1300명당 1개로 '편의점 대국' 일본(2200명당 1개)을 넘어섰다. 편의점은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7.1명(가족 종사자 2.8명, 파트타임 직원 4.3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4만 개 점포에서 2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력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 산업이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편의점 점포당 전체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웃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편의점의 발목을 잡았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주휴수당까지 명문화되면서 연초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주들은 한결같이 "주휴 수당 무서워 알바 못 쓰겠으니 내가 하루 덜 쉬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주휴 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 직원을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 고용에 나섰으며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가맹점주와 알바 직원들이 모두 눈물짓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맹본사는 본사대로 점주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

난해 업체별로 수백억 원대 지원금을 내놨다. 지난해 말에는 신규 출점 시 기존 편의점과 50~100m 이상 떨어지도록 개점 거리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도입했다. 업계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가맹사업자의 운영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맹사업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한쪽에만 공정 거래를 내세우며 다른 쪽에 불공정하게 압박한다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의 공존은 기업의 숙명이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아직도 기회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전체 소매시장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웃도는데 한국은 아직 5%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편의점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한다.

초창기 담배와 음료수, 삼각김밥 등을 팔던 매장이 이제 택배, 금융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객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피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지자체들이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포스에 입력되는 고객 빅데이터를 비롯해 이미 테스트 중인 무인매대, 원격점포 관리, 안면인식 결제, AI결제 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의점을 미래 유통 플랫폼으로 등극시키는 첨단무기가 된다.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와 알바 직원과의 상생을 통해 현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미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포스에 입력되는 고객 빅데이터를 비롯해 이미 테스트 중인 무인매대, 원격점포 관리, 안면인식 결제, AI결제 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의점을 미래 유통 플랫폼으로 등극시키는 첨단무기가 된다.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와 알바 직원과의 상생을 통해 현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미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포스에 입력되는 고객 빅데이터를 비롯해 이미 테스트 중인 무인매대, 원격점포 관리, 안면인식 결제, AI결제 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의점을 미래 유통 플랫폼으로 등극시키는 첨단무기가 된다.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와 알바 직원과의 상생을 통해 현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미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포스에 입력되는 고객 빅데이터를 비롯해 이미 테스트 중인 무인매대, 원격점포 관리, 안면인식 결제, AI결제 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의점을 미래 유통 플랫폼으로 등극시키는 첨단무기가 된다.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와 알바 직원과의 상생을 통해 현 위기를 잘 극복해 낸다면 미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hylee@

승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경제 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80%가량과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 협력사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덩달아 피해를 입는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모래성이다. 정부는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 이젠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기자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남북 관계 등 평화적인 측면에서는 좌파 진영이 옳다고 생각한다. 반면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는 우파에 지지를 보낸다. 이젠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적 논리에 이용당하면 정작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현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대기업을 억누르는 규제 정책을 내놓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말에 공감이 간다. 박 회장은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딜레마에서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정신의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도 필요하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을 몇 개월 동안 열 번 이상 압수 수색하는 나라입니다. 기업인을 '잡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환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면 기업가들의 사기가 살아나고 기업 경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syr@

"청와대에서 기업 CEO를 만나면 뭐합니까. 바뀌는 건 전혀 없잖아요." 최근 만난 대기업 한 임원은 요즘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지만,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대기업-중견기업-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는 모임을 추진 중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막상 얘기는 잘 들어놓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며 답답해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 기록이 작년 4분기 멈췄다. 증권사 전망을 크게 밀도는 어닝쇼크다. 최근 몇 년간 슈퍼 호황이 이어졌던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원인이다. 물론 지난해 3분기까지 워낙 많은 이익을 낸 착시효과일 수도 있다. 문제는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경신 행진이 지난해를 끝으로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급전직하는 아니더라도 당분간 다시 고점을

국민銀 노조 명분없는 파업은 자해행위

사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끝내 어제 총파업을 감행했다. 8일 새벽까지 사측과 벌인 협상이 타결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파업은 2000년 12월 주택·국민은행 합병 때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경고 파업에 이어, 앞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차(1월 30~2월 1일),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등의 파업 일정이 예고했다. 전체 조합원 1만4000여 명 가운데 노조 추산 8500여 명, 은행 측 파악으로는 5500명 정도가 파업에 참가했다. 은행 측은 전체 1058개 영업점의 문을 모두 열었지만, 거점 점포 411곳을 제외한 소형 점포 대부분은 정상적인 창구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입·출금 외에 대출 및 수출입·기업금융 등 주요 업무가 차질을 빚고, 고객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전산 시스템은 정상 가동돼 은행 거래의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 수당을 합친 300%의 성과급 지급으로 물러섰다. 역점을 두었던 'ROE(자기자본이익률) 연동 성과급' 제안도 접었다. 그나마 페이밴드와, 부점장·팀장 이하 직원 간 이원화된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일원화 등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노조는 이마저 거부했다. 한마디로 귀족노조가 모든 기득권을 다 챙기겠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남성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 2100만 원(근속연수 17년), 여성 7300만 원(13년)으로, 전체 평균 9100만 원 이상이다. 다른 업종보다 훨씬 후한 은행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임금이다. 국내 은행들이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금금리는 묶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손쉬운 이자장사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국내 은행이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 또한 형편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노조는 최소한의 내부 경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피크제, 페이밴드식 연봉 차등화 등을 막고, 제 배만 더 불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 3100만여 명으로 국내 성인 대다수가 거래하고 있는, 그야말로 리딩뱅크다. 이번 파업은 금융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自害) 행위다. 어떤 정당성도 없고,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감하기 어렵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다. 국민과 고객의 눈길도 차갑다. 국민은행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였다. 노조는 성과급 300%,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 신입행원 페이밴드(직급 승진을 못할 경우 임금인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산별교섭 합의 수준인 2.6%를 넘는 5.2%의 임금 인상도 주장했다. 사측은 막판 교섭에서 보로금과 시간

외 수당을 합친 300%의 성과급 지급으로 물러섰다. 역점을 두었던 'ROE(자기자본이익률) 연동 성과급' 제안도 접었다. 그나마 페이밴드와, 부점장·팀장 이하 직원 간 이원화된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일원화 등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노조는 이마저 거부했다. 한마디로 귀족노조가 모든 기득권을 다 챙기겠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남성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 2100만 원(근속연수 17년), 여성 7300만 원(13년)으로, 전체 평균 9100만 원 이상이다. 다른 업종보다 훨씬 후한 은행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임금이다. 국내 은행들이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금금리는 묶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손쉬운 이자장사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국내 은행이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 또한 형편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노조는 최소한의 내부 경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피크제, 페이밴드식 연봉 차등화 등을 막고, 제 배만 더 불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 3100만여 명으로 국내 성인 대다수가 거래하고 있는, 그야말로 리딩뱅크다. 이번 파업은 금융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自害) 행위다. 어떤 정당성도 없고,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 3100만여 명으로 국내 성인 대다수가 거래하고 있는, 그야말로 리딩뱅크다. 이번 파업은 금융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自害) 행위다. 어떤 정당성도 없고,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감하기 어렵다.



전혀 [專兮]

뭔가를 강하게 부정할 때 사용하는 부사 중에 '전혀'라는 말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느니 하는 말의 '전혀'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이 '전혀'의 어원은 한자 '專兮(전혜)'에 있다. '專'은 '오로지 전'이라고 훈독하고, '兮'는 '어조사 헤'라고 훈독하는데 '兮'는 감탄을 나타낼 때, 혹은 동사를 부사로 작용하게 하거나 부사를 특별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글자이다. '專兮'는 '오로지(專)'라는 부사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兮'라는 어조사를 붙여 사용하던 것이 후에 음운의 변화를 일으켜 마치 순우리말처럼 보이는 '전혀'라는 부사로 정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시조시인으로 유명한 김수장(金壽長)은 다음과 같은 시조로 당파싸움이 극심했던 당시의 정치상을 비판했다. "검으면 희다 하고, 희면 검다 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 할 이 專兮(전혜=전혀) 없네. 차라리 귀 막고 눈감아 듣도 보도 말라라." 이 시조를 통해서 '전혀'라는 부

사의 어원이 '專兮'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검다고 하면 상대는 그것이 검은 줄을 뻗어 알면서도 희다고 억지를 쓰고, 상대가 희다고 하면 나 또한 그것이 흰 줄을 잘 알면서도 검다고 강변을 한다. 흑백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이 서로 주장을 위한 주장을 앞세워 싸움질만 하는 상황이니 백성들이 그런 싸움질을 듣기도 보기도 싫어함은 당연하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을 망하게 한 고질병인 당파싸움을 하고 있다. 고질병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논쟁하지 않은 논쟁이 거듭되고, 흥미 위주의 보도답지 않은 보도가 이런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과 협잡꾼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호! 통재라! 위태롭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나 × LG Objet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



TV | 오디오 | 냉장고 | 가습공기청정기
 하이스페이스 | MERIDIAN technology | 저소음설계 | 굿나잇케어